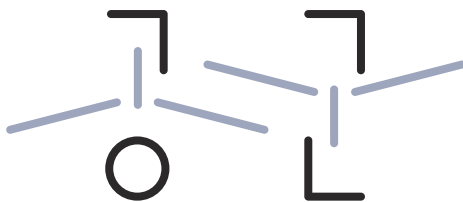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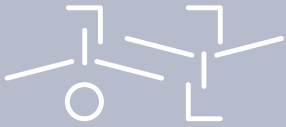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19
12
4 9 8

<http://afzin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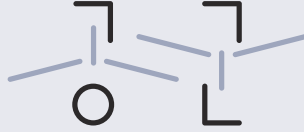


COVER STORY

70년의 시간과 F-35A

공군 창군 70주년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공군』은 올해 동안 공군 창군 70주년의 의미를 여러 기사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한 공군이 지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 눈부시게 발전해왔음도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스텔스기 F-35A의 도입은 공군의 발전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 『공군』 12월호는 올해 있었던 70주년 관련 이벤트를 망라하는 한편, 최신전투기 F-35A를 소개합니다.





04	화풍지설	해동청 보라매
06	기획특집	창군 70주년 되짚어보기
12		보이지 않는 힘, F-35A
18	르포르타주	교육사령부 장교교육대대
26	내 옆의 공군인	최성열 예비역 준장
32	그날, 우리 하늘	임시정부의 부뚜막 : 연재를 마치며
34	우리 부대는	제16전투비행단
36	공군소담	신발

40	지금 이 순간!	참모총장 동정 & 공군 소식
44	공군인의 편지	주재원 병장 등 3명
46	책 읽는 공군	『마션』 & 『아틀러 심리학』

48	우주의 이해	우주작전 - II
50	생활 타이포그래피	하기 쉬운 실수_작업편(하)
52	공군인의 마음 건강	고르디우스의 매듭
54	첫 독자의 편집후기	『희망 버리기 기술』
56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군인은 현실주의자여야 한다”
58	생각하는 그림	인생은 73세부터
60	기준의 기준	군대식



표 지(앞) 겨울 하늘을 누비는 F-35A
그 래 픽 하사 홍인선
표 지(뒤) 자토 일러스트

발 행 일 자 2019년 12월 1일(통권 제498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원인철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강성구
편 집 감 수 중령 정기완
기 획 · 편 집 대위 이요셉, 8급 김모아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9110433)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동청 보라매

해동청 보라매의 뜻을 아시는지요?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대국가 시절부터 훈련된 매를 이용하여 날짐승이나 들짐승을 잡는 매사냥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백제의 매사냥 기술은 일본까지 전파되어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까지는 매사냥이 귀족층의 고급 레저문화로 유행했습니다. 특히 왕실에서 매사냥을 선호했는데 조선 실록에도 매사냥에 대한 기록이 600회 이상 나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여러 임금 중에서 세종대왕이 유별난 매사냥 마니아였다고 합니다. 관련 기록이 160회나 되어 단연 선두라고 하는군요. 학구적으로 알려진 세종대왕의 또 다른 일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사냥꾼을 매 응자를 써서 응사(鷹師)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 명맥을 잇는 사람이 단 두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과 매사냥은 큰 관계가 없고 몽골 등 북쪽 지방이 매사냥의 종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매사냥의 본류는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매는 그 종자가 탁월했는데 순간 비행속도가 아주 빠르고(시속 300km 이상될 것으로 추정) 사냥감에 대한 공격 정확도도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방계열의 이민족들은 우리나라의 푸른빛 도는 사냥매를 해동청(海東靑)이라 부르며 선망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해동청을 참매 혹은 송골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는 태어난지 1년이 안되는 햇매를 야생에서 거두어와 사냥법을 훈련시킨 용감하고 씩씩한 매를 지칭합니다. 우리 공군의 상징이 보라매가 된 기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추정컨대 청록과 시인 조지훈 선생이 작사한 공군의 전통군가 '은익의 노래'에 "해동청 보라매가 바람을 탄다"는 구절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6.25전쟁때 공군에 소속된 문인단인 창공구

락부에서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작품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조지훈 선생의 식견과 해안에서 대한민국공군의 상징이자 별칭이 된 보라매가 다시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을 개연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매사냥이 이 땅에서 사라진지 오래인 때, 과연 조지훈 선생과 공군이 아니었다면 해동청이니 보라매니 이런 어휘들이 지금 살아있을까 싶습니다만 우리의 언어 속에는 의외로 사냥매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옹고집'은 어원이 옹(鷹)고집입니다. 사람 말을 안들을 때는 하염없이 고집을 부리는 매의 특성을 빗댄 표현이지요. 또 '매섭다', '매몰차다', 매처럼 날카롭게 노려본다는 '옹시(鷹視)', 사냥매가 먹잇감을 놓치고 하늘에서 빈 바람을 맞으며 빙글빙글 도는 모습에서 나온 '바람맞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대표적 표현은 '시치미'지요. "저 사람 시치미 뚝 떼네" 할 때 시치미는 원래 사냥매의 꼬리 날개 중앙에 달아주는 인식표였습니다. 쇠뿔을 삶은 다음 딱딱한 걸쭉데기를 직사각형으로 자르고 나서 그 위에 주인과 매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고니의 흰 깃털과 소리가 멀리 퍼지는 인청동 방울을 묶어서 만듭니다. 일종의 ID카드로 보아야 하는데 방울을 다는 것은 숲속에서 사냥에 성공한 매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시치미가 있었다는 것과 시치미를 떼어 남의 매를 자신의 매로 둔갑시키는 사례에서 비롯된 관용어구가 일상 언어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 우리의 선조들에게 매 사육과 매사냥이 매우 보편화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해동청 보라매의 명성 때문에 몽골 간섭기의 고려는 응방(鷹坊)을 만들어 사냥매를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원나라로 보내는 관청까지 두었었고 조선도 해동청을 보내라는 명나라의 조공 요구를 맞추느라 함경도와 평안도

에 장수를 파견하여 매를 포획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대륙 전역에 매사냥의 인기가 높았고 우리나라 사냥매를 총칭하는 해동청이 최고의 기량을 갖춘 사냥매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시치미도 각 지역의 기후나 문화에 따라 달라진 형태로 남아있는데 매의 꼬리에 소유자의 성명을 정확히 표기한 시치미를 달았던 우리의 문화와는 달리 몽골 카자흐족은 검독수리를 이용한 사냥을 하는데 양다리에 긴 가죽끈을 묶어 훈련된 사냥매임을 표시합니다. 이들은 약 8년 정도 함께 사냥을 하면 그간의 노고에 감사함을 담아 다리에 달았던 가죽끈을 떼고 흰색 천을 달아서 알타이 산맥 하늘 위로 날려 보내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 천을 단 검독수리는 이미 인간을 위해 봉사한 새이니 누구도 다시 잡아들이거나 해치지 말 것을 알리는 그들만의 징표라고 합니다. 수년 전 방송되었던 다크멘터리에서 검독수리의 여우사냥에 의존해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온 주인이 정들었던 검독수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며 자신의 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는 이번 호 화풍지설을 마지막으로 쓰고 정들었던 공군의 동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월간공군과의 인연도 꽤 깊었던 듯합니다. 80년대 후반, 중위 시절 2년여 정도 공군지 편집장교로 일했었고 소령 때인 1998년도에는 계간지였던 공군지를 월간지로 개편하는 작업을 주무하며 공군지가 지금의 편집 스타일로 변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어느 기관지도 공군지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잡지는 없습니다. 6.25전쟁 중에도 선배들은 공군지를 계속 발행하여 전쟁을 기록했고 창군 선배들의 정신과 문화를 후배들에게 남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도 이 잡지의 편

집인으로써 공군지 독자가 현재 군 생활을 하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30년, 50년, 100년 뒤의 후배들이기도 하다는 생각으로 공군지를 만들었습니다. 먼 훗날 후배들은 반드시 공군지를 통해 지금의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가야 할 대한민국공군의 정신과 철학을 공군지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재해석하며 우리 공군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6년간 공군 유니폼을 입으며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소년의 몸으로 공군에 들어와 이제 장년의 몸으로 공군을 떠나게 된 지금, 공군에 들어올 때 기뻐던 것처럼 설레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주어진 임무들을 동료 선후배들 덕분에 잘 마치고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영광수호의 일익을 담당하며 스스로를 성장시켰고 가족들도 잘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공군이 제게 베풀어준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그간 화풍지설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공군과 함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갈 공군지에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시치미를 떼 해동청처럼, 다리에 흰색 천을 묶은 검독수리처럼 저의 본향(本郷)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군에 첫발을 내밀며 부푼 가슴으로 바라보았던 36년 전의 하늘처럼 오늘도 저 하늘은 변함없이 아름답군요. 대한민국공군이 해동청 보라매처럼 높이 비상하여 조국 수호의 선봉장이 되어주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정훈실장 대령

정훈실장

창군 70주년 되짚어보기

공군 창군 70주년에는 무슨 일들이?

월간 『공군』 2019년 1월호 커버스토리에서 편집실은 ‘이번 한 해를 창군 70주년에 걸맞은 다양한 기획으로 채워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약속대로 70주년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해두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렇게 2019년을 다 보내고 어느덧 12월이 되었다. 못 전한 소식, 다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남았다. 2019년의 마지막 달을 맞아 한 해를 되짚어보며 창군 70주년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창군 70주년 기념 엠블럼

공군은 창군 70주년을 기념하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군 70주년에 맞춰 엠블럼을 제작했다. 엠블럼은 기존의 공군마크와 함께 공군 인트라넷·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공군에서 발행하는 공문서 및 홍보물·간행물 등에 사용되었다. 엠블럼의 숫자 ‘70’은 공군 창군 70주년을 표현한 것이다. ‘종이비행기’는 공군의 항공기를 국민들이 친근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상화한 것이며, 네 가지 색상은 공군의 핵심가치 도전(빨강), 헌신(주황), 전문성(파랑), 팀워크(노랑)를 표현한 것이다. ‘지구’와 ‘인공위성’은 세계 속의 공군과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서의 공군 비전을 상징하는 것이며 인공위성이 그리고 있는 궤적은 태극문양을 표현하고 있다. 창군 70주년 기념 엠블럼은 올 한 해 동안 공군회관 대형광고판, 공군의 버스, 각종 행사 포스터 등에서 국민들과 만나며 사랑받았다.





70주년 기념 랩핑을 한 T-50B 항공기들

블랙이글스 70주년 기념 랩핑

블랙이글스도 70주년의 옷을 입고 하늘을 누볐다. 8대의 항공기가 70을 그리고 있는 70주년 기념 이미지는 강한 공군력과 팀워크,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 조국에 대한 충성을 표현했다. 블랙이글스는 기념 랩핑을 하고 한 해 동안 공군 창군 70주년을 국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공군 창군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정기음악회

공군은 음악을 통해서도 국민과 함께 창군 70주년을 기념했다. 7월 5일(금) 저녁, 일반 국민과 공군 원로, 예비역, 현역 장병, 주한무관, 주한 미공군, 군 가족 등 관람객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KBS홀에서 ‘공군 창군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정기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에는 공사 1기부터 공군 창군과 함께한 원로들이 참석하여 행사 의미를 더했으며, 공군군악대의 공연과 함께 미공군 태평양-아시아 밴드, 가수 김연자, 배우 조성옥, 가수 박예음 등 다양한 출연진이 즐거움을 선사했다. 음악회는 10월 6일(일) KBS에서 방송되었으며, KBS 열린음악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공군 창군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정기음악회



9월 19일(목)에 열린 표지동판 설치 기념식

공군 창군 발상지 표지동판 설치

월간 『공군』 9월호 기획특집에서 예고했던 ‘공군 창군 발상지 표지동판 설치’는 예정대로 9월 19일(목)에 이뤄졌다. 공군 창군을 결의하기 위해 공군 창설 주역 7인¹⁾이 모였던 회동장소에 설치된 표지동판은 가로·세로 45cm 크기이며, 공군 창설 주역 7인의 이름과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군 창군을 결의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설치 장소는 김정렬 장군 자택 터로서, 현재 성북구 동선동 2가이다. 현재는 개인 소유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동판은 건물 앞 인도에 설치되었다.

1) 최용덕, 이영무, 장덕창, 김정렬, 박범집, 이근석, 김영환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우표 발행

9월 20일, 건국 60주년 기념우표 이후 11년 만에 발행되는 군 기념우표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우표’가 발행되었다. 우표에는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문구·로고’와 함께 푸른 영공을 바탕으로 ‘전투 조종사’, ‘비상하는 F-35A 전투기’, ‘하늘에 태극무늬를 수놓고 있는 블랙이글스’의 모습이 담겼다. 기념우표는 총 688,000장이 발행되었으며 전국 우체국에서 일반 우표와 동일한 가격(380원)에 판매되었다. 한편 월간 『공군』 편집실은 독자들에게 우표를 나눠주기 위해 수량 일부를 확보했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공군지 가장 뒤편에 있는 독자엽서에 사연을 담아 편집실로 보내자. 선정된 독자에게는 우표와 기념품을 함께 보내드린다. 남은 우표가 많지 않으니 서두르시길!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우표



창군 70주년 기념식



창군 70주년 기념행사

창군 70주년 기념식 & 기념행사

공군은 창군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10월 2일(수) 서울 공군회관에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6·25전쟁 출격조종사, 역대 공군참모총장, 케네스 윌즈바흐 미7공군 사령관, 6·25전쟁 참전국 대사 및 무관 등이 참석하였고 국민의례, 공군 약사보고, 참모총장 기념사, 공군 전우회장 축사, 헌시 낭독, 공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10월 19일(토)에는 국민들과 함께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ADEX 2019 행사장에서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참석 대상 인원은 기념식과 같았으며, ADEX 행사장을 찾은 국민들도 함께 모여 창군 7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국민조종사 임명식, 기념사, 축사, 축하비행, 폐식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축하비행에는 F-15K, KF-16, FA-50 등 공군의 항공전력에 더불어 미 공군의 F-16이 함께했다.

제7기 국민조종사 선발

공군의 임무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국민이 직접 국산 공군항공기를 타고 공군조종사의 비행임무를 체험하는 ‘국민조종사’가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임명되었다. 국민조종사 선발은 이번이 7번째이며, 올해는 창군 70주년을 기념하여 4명에서 7명으로 선발인원이 확대되었다. 공군은 제7기 국민조종사 선발을 위해 8월 10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자를 받았으며, 서류심사, 영상심사, 비행적응훈련 등을 모두 거쳐 최종 7명을 임명하였다. 7명의 국민조종사들은 10월 19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공군이 운용하는 국산항공기 T-50, FA-50에 탑승했다. 국민조종사가 탑승한 항공기들은 강릉기지와 수원기지 인근, 독립기념관 상공을 비행했다.



제7기 국민조종사들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왼쪽부터) 권익환, 김광진, 김수찬, 이강재,
이유주, 장영수, 한미주 씨.



다큐멘터리 '충천'의 한 장면(출처: KBS 유튜브)

최용덕 장군의 일대기, 다큐멘터리 '충천'

공군은 KBS와 함께 '공군의 아버지' 최용덕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최용덕 장군의 항공독립운동을 주로 다뤘으며, Avro 504k 실물과 다양한 특수효과를 결합해 실제 비행의 긴장감까지 담아냈다. 2월 21일(목)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제작일정에 돌입한 공군과 KBS는 중국과 대만 현지 취재를 통해

새로운 사료들도 발굴해냈다.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공군이 창군된 지 70년만인 10월 1일 KBS에서 방송되었다. 다큐멘터리 '충천'은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다 담지 못한 자세한 이야기는 월간『공군』 10월호에서 기획특집으로 읽을 수 있다.

공군 창군 70주년 특별기획전

월간『공군』 9월호 기획특집으로 다뤘던 공군박물관의 '공군 창군 70주년 특별기획전'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9월 27일(금)부터 12월 22일(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70년!'을 주제로 '1부: 공군의 태동과 창군', '2부: 6·25전쟁과 공군', '3부: 도약하는 공군', '4부: 공군의 오늘과 미래'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의 주요 전시물로는 미국 윌로우스(Willows) 한인비행학교 소식을 담은 '독립신문'(1920), 안창남 비행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안창남 비행기(飛行記)'(1923), 국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공군본부 직제안'(1949), 공사 1기 졸업생의 첫 출격을 기념하여 후배들이 선물한 '태극기'(1952), 6·25전쟁 참전 전투조종사였던 (예)이배선 대령(공사 1기)의 '작전일지'(1952)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공군 관련 영상 관람, 항공기 조종 체험 등도 준비되어 있으며, 관람객을 대상으로 응원엽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특별기획전 내부 모습.
왼쪽 벽면에 역대 공군지가 보인다.



공군역사 학술회의에서 공군사관학교 김기동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제6회 공군역사 학술회의 개최

70주년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노력은 학술 영역에서도 이뤄졌다. 공군과 공군역사재단은 공군의 기원과 창군 이후 발전 과정을 학술적으로 조명하여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11월 7일(목)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6회 공군역사 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대한민국 공군 70년의 발자취와 역사적 교훈'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개회사, 이영하 공군역사재단 부이사장이 축사를 했고 역대 공군참모총장,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 군 내의 역사전문가 200여 명이 참가했다. 홍성표 아주대 교수의 사회

로 진행된 학술발표에서는 김기동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항공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공군의 창군', 윤시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박사가 '6·25전쟁 및 전후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증강', 엄정식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1970~80년대 자주국방정책과 대한민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 최영훈 前 공군역사기록관리단장이 '공군 역사업무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발표했고, 조성훈 군사편찬연구소장,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홍윤정 심산김창숙기념관 학예실장, 박동찬 군사편찬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에 참가했다.



공군사관학교의 최용덕 장군 동상.
동상은 공군사관학교와 교육사령부에 각각 설치되었다.

최용덕 장군 동상 건립

공군은 창군의 주역 최용덕 장군의 동상을 공군사관학교(11월 8일)와 교육사령부(11월 18일)에 건립하고 11월 19일(화) 공군사관학교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동상 건립은 최용덕 장군의 정신과 업적, 공군 창군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최용덕 장군의 동상은 높이 3.2m이며 온화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손을 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다. 상승의 이미지를 담은 동상 좌대와 부속조형물에는 최용덕 장군의 일대기가 적혀 있다. 바닥의 태극문양은 부드럽고 날렵한 향적운으로 만들어져 우리 공군을 상징하며, 가운데 동상을 중심으로 펼쳐진 7개의 기둥은 공군 창군 주역 7인과 창군 70주년을 의미한다. 역사의 기둥 양끝에는 공군의 슬로건과 창군 70주년 로고가 새겨져 있다. 동상이 공사와 교육사에 설치된 이유는 미래 공군의 주역이 될 생도/교육생들에게 귀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동상 제막식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렸으며 6·25 전쟁 출격조종사, 역대 공군참모총장, 최용덕 장군 유가족 등이 참석하여 경과보고, 최용덕 장군 공적소개, 제막, 공군참모총장 축사, 최용덕 장군 유가족 회고사, 공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월간『공군』E-Book 자료관 초기 화면

월간『공군』E-Book 자료관 구축

공군지는 공군의 역사와 함께 발행되었기에, 옛 공군지를 보면 그 당시 공군에 대해 알 수 있다. 월간『공군』을 모아서 본다면 공군의 역사를 모아보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에 공군은 독자들이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쉽고 편하게『공군』을 읽을 수 있도록 월간『공군』E-Book 자료관(www.afzine.co.kr)을 구축했다. 독자들은 E-Book 자료관에서 공군지 전권 열람뿐만 아니라 구독신청 및 주소변경까지 가능하다. 공군지를 읽고 난 후의 소감도 독자의견 기능을 통해 편집실로 보낼 수 있다. 편집실은 이를 통해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한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관심 있는 독자라면『공군』통권 500호 기념 이벤트부터 참여해보자.

『공군』창간호와『코메트』한글화

E-Book 자료관을 통해 과거 공군의 기록을 살펴보려는 독자들에게는 더욱더 희소식이 있다.『공군』창간호와 44권의『코메트』가 한글화되고 현대식으로 재편집되어 E-Book 자료관에 12월 중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문과 낮은 화질 등으로 창군 초기 공군지를 읽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던 독자들이라면 새롭고 쾌적해진 모습에 박수치게 될 것이다. 50년대 공군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E-Book 자료관에서 새로워진『공군』창간호와『코메트』를 만나보자. 공군은 내년에도 이어서 한글화 및 재편집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공군지를 통해 공군의 문화와 역사를 더욱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AF**



한글화 및 재편집 작업을 거친『코메트』4호

500 EVENT

월간『공군』500호 (2020년 2월호)를 함께 축하해주세요!

『공군』스웨트셔츠, 『공군』열쇠고리 등 푸짐한 상품이 기다립니다.

접수 부문

『공군』500호 축하 메시지

창의적으로, 구체적으로, 문학적으로
친구의 생일처럼 편하게 축하해주세요!

월간『공군』에 얹힌 사연

월간『공군』에 얹힌 나만의 사연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월간『공군』이 좋은 이유

월간『공군』을 왜 좋아하시나요?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내용의 차별성을 위해 **공백 포함 250자 이상** 보내주세요. 최대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20년 2월호 월간『공군』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인원은 부문별 10명이며, 기념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번외 이벤트

인스타그램으로

월간『공군』 혹은 월간『공군』 E-Book 자료관을 홍보해주세요.

이벤트 기간 중 게시글을 올려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 『공군』스웨트셔츠를 보내드립니다.

해시태그 '#월간공군'을 적으면 이벤트 응모 완료! (공개 게시물만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 2020. 1. 5.(화)

접수 방법

월간『공군』 E-Book 자료관
독자 의견을 통해 접수
(www.afzine.co.kr / 포털에서 '월간 공군' 검색)



선정자 발표

1월 말 개별 이메일/DM 통보
선정자 주소 회신 기간 : 통보일로부터 2주

안내사항

- 발송 기념품 및 접수 기간,
선정 인원 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모 시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미기재, 오류 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선정자는 개별 이메일/DM 통보되며,
기간 내에 주소 미회신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보이지 않는 힘, F-35A

F-35A 쉽게 이해하기



우리 공군의 첫 스텔스기 F-35A가 도입되었다. 공군의 항공기를 좋아하는 월간『공군』독자들이라면 F-35A에 대한 사진과 기사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래서 월간『공군』편집실이 F-35A에 대한 소개와 멋진 사진, 인포그래픽을 준비했다.



스텔스(Stealth) 전투기

F-35A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 전투기’라는 것이다. 스텔스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형상이나 자재, 페인트 등을 통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한 후 반사되어 돌아오는 정보를 가지고 항공기의 위치를 찾는데,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항공기는 매우 미약한 전파만 반사하기 때문에 레이더가 항공기로 인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스텔스기는 적의 레이더 탐지와 방공망을 뚫고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F-35A는 스텔스 성능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적외선 탐지율까지 낮아 적의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5세대 전투기

F-35A는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전투기는 ‘1세대 전투기’인 제트 전투기를 시작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대 구분이 되어 왔으며, 5세대 전투기는 현존하는 가장 발전한 세대의 전투기이다. 5세대 항공기로서 F-35A는 기존 4세대 항공기와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앞서 설명한 스텔스 성능이다. 둘째,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는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처리되어 조종사에게 최상의 정보로 제공된다. 셋째, 우수한 항전장비를 바탕으로 공대공, 공대지, 감시/정찰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F-35? F-35A?

‘F-35A’의 ‘F’는 ‘Fighter’ 즉 전투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숫자 뒤에 A는 왜 붙어있을까? 바로 모델 구분을 위해서다. 1993년, 미 국방부는 국방예산의 절감을 위해 공군, 해군, 해병대의 전투기를 통합하여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F-35A, F-35B, F-35C가 탄생하게 된다. F-35A는 F-35 시리즈의 기본형으로서, 통상적인 이착륙을 하는 공군용 전투기이다. F-35B는 해병대 상륙작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단거리 이륙과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다. 조종석 후방에 수직이착륙을 위한 리프트팬이 설치되어 있다. F-35C는 해군 항공모함에 탑재하기 위한 모델이며, A, B형에 비해 크면서도 접을 수 있는 날개가 달려있다. 함재기라는 특성상 연료 탑재량도 가장 많다. 즉,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A는 F-35 시리즈 중 공군용으로 제작된 모델인 것이다.

대한민국 공군과 F-35A

F-35A는 '14년 9월 계약체결 이후 약 5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우리 공군의 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군은 대한민국 최초의 5세대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운용한다는 목표 하에 기지구축, 시설공사, 도입 조종사/정비사 선발 및 훈련 등 체계적인 전력화 준비를 해왔다. 우리 공군이 F-35A를 도입한 것은 주변국의 스텔스기 확보 등 전방위적인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한 전략자산을 보유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F-35A는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급 핵심전력으로서 우리 군의 전략 및 작전개념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F-35A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기,
보이지 않는 힘! F-35A를 한눈에 이해해 보자.
월간『공군』이 준비한 F-35A 인포그래픽!

특징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레이더

터치스크린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조종사 1명 탑승

스텔스 형상 / 도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단발 엔진
추력 : 43,000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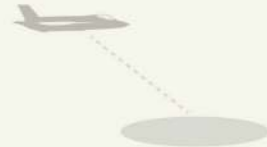
운용개념

공대공



스텔스 성능과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레이더, 전자전능력 등 진보된 통합항전시스템 및 아군기간 데이터링크로 공중우세 능력 확보

공대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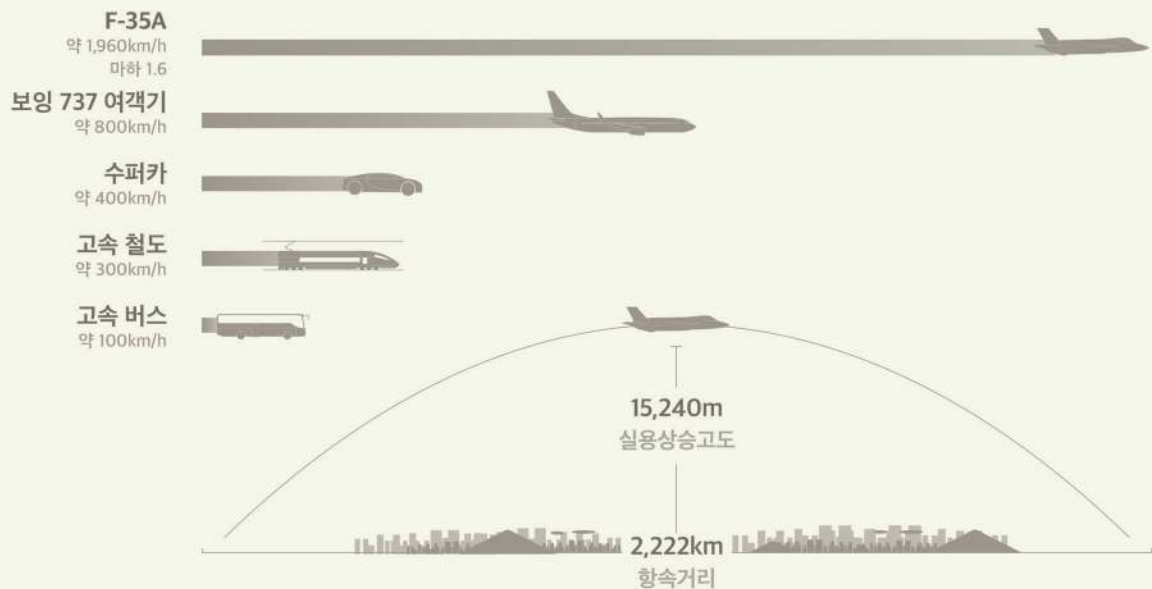


스텔스 성능과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레이더 및 전자광학표적시스템 등 진보된 통합항전 장비로 적 방공망을 피해 주요 표적 정밀폭격 능력 확보

도입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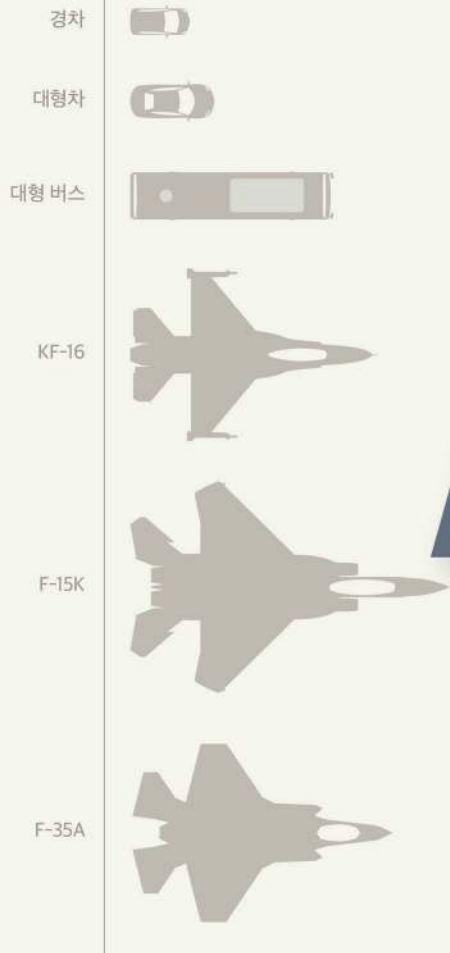


최대속도



제원

크기비교



기장
15.67m

기폭
10.67m

기고
4.34m



무게 (기본)



14,002.6kg

최대무장적재 (최대설계)



30,822kg

탑재가능무장 공대공

AIM-9X
(Sidewinder)AIM-120C
(AMRAAM)GUN
(25mm)

⋮

공대지

GBU-12
(Paveway II)GBU-31
(JDAM)GBU-39
(SD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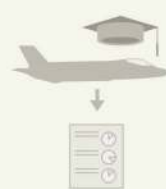
전투행동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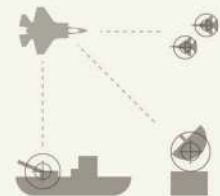
5세대 스텔스
강력한 피탐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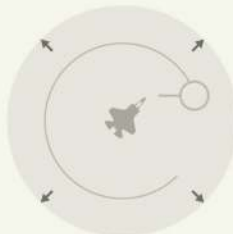
5세대 자동화 센서의
융합된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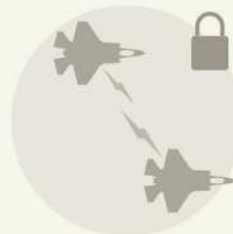
다수 표적
동시 식별 및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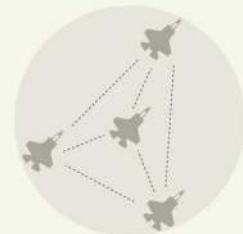
전자광학 분산형개구시스템으로
360도 전방향 상황 인식



강화된 기밀성
음성 및 데이터 통신



다기능 첨단 데이터링크로
공동작전 능력 향상





글
대위 이요셉
(미디어콘텐츠과)



사진
준위 최준오
(교육사)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군사훈련전대 장교교육대대
금강석을 연마하는 사람들



위관 장교의 계급장은 다이아몬드, 즉 금강석을 형상화한 것이다. 금강석은 땅 속에서 매우 높은 열과 압력을 견디고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석이 된다. 위관 장교의 계급장이 금강석인 이유는 장교란 고된 훈련을 통해 태어나, 단단하고 영롱한 힘으로 국가를 수호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장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공군 학사장교 후보생은 땅 속의 금강석을 형상화한 일명 '알다이야' 혹은 '알소위' 계급장을 사용한다.



왼쪽부터 장교교육대대 이진 대위(진), 백용훈 대위, 송영은 중위(진), 오진석 병장

‘알다이아’는 아무런 대가 없이 ‘다이아’가 될 수 없다. 홀로의 힘으로 장교가 될 수도 없다. 땅 속에 묻혀있던 다이아가 장교의 어깨에서 빛을 내기 위해선, 이를 연마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번 달에는 ‘금강석을 연마하는 사람들’, 장교교육대대 훈육관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학사 143기 야외종합훈련에 동행했다.

※ 12월 1일부 임관 및 진급자는 혼동을 막기 위해 취재 당시 계급으로 표기하였음.



장교교육대대 입구에 놓여있는 비석. 비석 뒤에 있는 건물은 장교대의 실내학과장 '충성관'이며 오른쪽에 작게 보이는 건물은 생활관인 '명예관'이다.

11월 5일, 10시. 장교교육대대에 도착했다. 임관한지 5년 5개월만이다. '사관 후보생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라고 새겨진 비석이 오랜만이라고 인사해주는 듯 했다. 훈련 10주차에 접어든 143기 학사사관 후보생들은 '재난 통제' 실기평가로 분주했다. 방독면을 쓰고 열심히 뛰어 다니는 후보생들을 지나 중대본부로 향했다. 작전소대장 이진 중위가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장교대의 스케줄을 담당하는 이 중위는 훈련일정을 설명해주었다. 재난 통제 실기평가 이후에는 임관종합평가 재평가, 오후와 저녁에는 야외종합훈련 사전교육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후보생들의 평가가 끝나길 기다리며 오전에는 훈육관들과 취재일정을 상의했다.

장교교육대대는 학사사관후보생, 학군사관후보생이 장교로 다시 태어나는 곳이다. 더불어, 준사관 교육도 여기서 이뤄진다. 전술학, 화기학 등의 전문과목은 별도의 교관실이 훈련을 담당하지만, 그 외 병영생활과 제식 같은 기본부터 유격, 야외종합훈련 등의 굵직한 훈련들까지 한 명의 후보생을 정예장교로 길러내는 것의 상당부분은 장교대 훈육관들의 몫이다. 이에 수반되는 행정소요와

인원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자연히 업무량이 많다. 다른 교관실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훈육관들은 각자 맡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올해 6월 임관한 군수소대장 윤설기 소위는 행군 준비를 위해 업무에 집중하며 "후보생 때는 소대장이 마냥 멋있게만 보였는데,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뒤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보급소대장 노정훈 소위(앞쪽)와 군기소대장 김동환 중위

14시 40분. 후보생들이 실내학과장에 집결했다. 야외종합훈련 사전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야외종합훈련의 핵심은 ‘완전군장 행군’인데, 단순히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것이기에 미리 행동양식과 규칙을 정해두어야 하며 후보생들은 분대장을 비롯한 각자의 역할을 숙지해야 한다. 분대장은 대형이 변할 때마다 분대원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해야 하며, 앞으로부터 뒤로 전달사항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 분대원도 있다. 후보생들은 작전소대장의 교육에 귀를 기울였다.



야외종합훈련 사전 교육을 하고 있는 작전소대장 이진 중위

이론교육은 실습으로 이어졌다. 작전소대장을 선두로 190여 명의 후보생이 장사진을 펼쳤다. 주요한 연습과제는 출발과 도착 시의 분대장 행동요령, 교차로 차단, 대열 간격 유지,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대형 변화 등이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단순한 내용이지만 안전과 훈련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실습에는 긴 시간이 할애되었다. 소대장들은 후보생들과 함께 걸으며 대열을 정돈하고 고쳐야 할 점들을 알려줬다.



실습교육을 마치고 ‘태극기수’를 선발하고 있는 모습. 태극기수는 야외종합훈련기간 동안 본인의 군장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행렬의 앞에 선다.

17시에는 점호장에서 최우수/우수소대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장교대는 기본적으로 2개 중대 각 4개 소대 총 8개 소대로 이뤄져있는데, 소대의 훈련성과와 병영생활점수 등을 합산하여 최우수소대와 우수소대를 학사후보생 훈련기간 동안 두 차례 선발한다. 최우수/우수소대로 선발되면 ‘최우수/우수소대’ 깃발을 소대 기수가 들게 되고, 각종 차출에서 면제 받거나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 이날 ‘최우수/우수소대’로는 각각 2중대 2소대와 2중대 1소대가 선발되었다. 시상식은 대대장 주관 하에 교육소대장 송영은 소위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훈육관들은 후보생 훈육 외에도 각자 맡는 작전, 군기, 교육, 보급 등의 임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우수/우수소대’ 선발은 교육소대장의 관할인 것이다.

이날 송 소위에게 시상식 진행은 단순한 업무로 느껴지지 않았다. 송 소위가 담당한 2중대 2소대가 최우수소대로 선발되었기 때문이다. 12월에 중위로 진급하는 송 소위는 항공과학고를 졸업하고 정비부사관으로 일하다가 학사장교가 되어 다시 임관했다. 정비부사관으로 일하

던 중 ‘군인을 위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인사교육 특기를 받았다는 송 소위는 “사복을 입고 입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후보생들이 정복을 입고 임관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훈련을 하며 후보생들의 질문 수준이 달라지는 걸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라며 소대장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②



① 시상식 전, 대대장근후보생에게 시상식 진행요령을 설명하고 있는 송영은 소위(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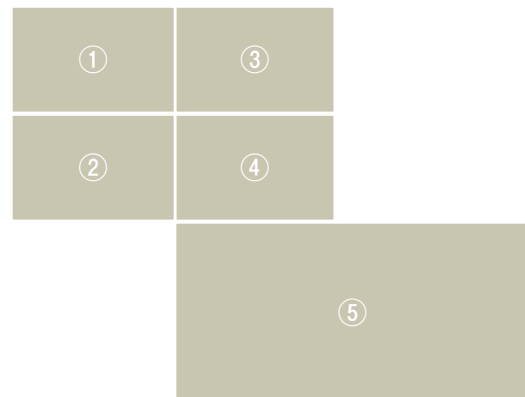
② 최우수/우수소대 시상식. 장교교육대장 한용태 중령(왼쪽)이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저녁식사 이후에도 학과는 이어졌다. 야외종합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었다. 이와 함께 4차 자치근무자 선발도 이뤄졌다. 자치근무자란 훈련기간 중 소대, 중대, 대대의 대표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훈육관들과 함께 장교대 생활을 돕는 임무를 맡는다. 초기병영생활교육 기간 이후에는 점호도 자치근무자 감독 하에 이뤄지며, 이날은 군수장교근무후보생이 야외종합훈련 중에 먹을 전투식량을 후보생들에게 나눠주었다. 자치근무자가 되면 다른 후보생들보다 덜 쉬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많은 후보생들은 의욕적으로 자치근무에 지원한다.

한편, 중대본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다음날 있을 행군준비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에 일부 훈육관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었다. 일과 중에는 훈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면 시간외근무는 필연적이다. 어제 당직을 서고 오프를 했던 2중대장 김준식 중위도 저녁 시간 이후 다시 출근했다.

2중대장의 등장은 후보생들에게는 불운한 소식이었다. 일과를 마치고 느슨해진 분위기 속에 일부 후보생이 군기가 풀린 모습을 보였고, 이를 2중대장과 당직사관 이정현 중위가 포착한 것이다. 평소에도 무섭기로 유명한 2중대장의 불호령에 일부 후보생이 점호장으로 집합했다. 한동안 엄한 훈육이 이뤄졌다. 당직사관은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점호시간에 자치근무자들을 통해 전달했다. 굵직한 훈련이 대부분 끝난 훈련 10주차이지만, 군기가 해이해지는 것은 언제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야외종합훈련을 앞두고 긴장되는 밤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11월 6일 06시. 장교대에 일명 ‘저벅가¹⁾’가 울려 퍼졌다. 이어서 방송을 담당 하는 작전장교근무후보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상! 기상! 장교교육대대 전 후보생은 침구를 정리하고 창문을 개방하고 스트레칭 및 공공실 출입 후 06시 10분까지 중앙점호장에 점호 집합 완료할 것.....” 잠이 확 깨면서도 더 자고 싶은 기분이 함께 밀려들었다. 겨우 일어나 옷을 챙겨입고 점호장으로 나갔다. 11월의 새벽은 어둡고 매서웠다. 빛이 부족해서 사진을 찍기가 어려웠고, 여러 겹의 옷을 입었는데도 한기가 돌았다. 당직사관의 지휘 아래 아침점호를 실시했다. 국민의례와 당부 몇 마디가 이어졌다. 후보생들은 점호 이후 바로 식사 및 신변정리와 야외종합훈련 준비에 돌입했다.



- ① 22시가 가까워오는 시각에도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이진 중위. 그의 뒤로 보이는 '진대장은 사랑이다' 피켓은 140기 후보생들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 ② 자치근무자들에게 점호 지침을 전달하고 있는 당직사관 이정현 중위 (왼쪽에서 두 번째).
- ③ 훈련을 앞두고 회의중인 훈육관들
- ④ 자욱한 안개로 인해 출발이 한 시간 지연됐다.
- ⑤ 행군 대열 최선두에서 대대를 이끄는 1중대장 백용훈 대위. 그의 조율에 따라 행군 속도와 간격이 조정된다.

1) 영화 '복경의 55일'의 OST. 도입부의 군화소리가 인상적이어서 '저벅가'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과거에는 장교교육대대, 부사관교육대대, 신병교육대대 모두 기상송으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장교대와 부교대, 신병3대대만 사용하고 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잠이 깬 이들에게는 아직도 훈련소의 기억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07시 20분. 훈육관들은 중대본부에 모여 행군을 앞두고 회의를 실시했다. 야외종합훈련은 영외로 나가는 훈련인 만큼 더욱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1중대장 백용훈 대위는 행군 코스 숙지의 중요성과 연막탄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가보니 후보생들은 행군 준비를 모두 마치고 점호장에 집합해 있었다. 등에 멘 군장만큼이나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안개가 너무 짙었다. 점호장에서 장교대 바깥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대대장의 결심에 따라 출발이 연기되었다. 후보생들은 내심 안도했을지 모르지만, 훈육관들은 달라진 일정에 코스를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안개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했다. 한 시간 후에야 안개가 걷혀, 09시부터 훈련이 시작됐다. 1일차만 행군 거리를 조금 줄이기로 했다.

행군의 최선두에는 1중대장 백용훈 대위가 섰다. 그 뒤로 대대장군 무후보생과 태극기 기수, 장교대기 기수, 1분대 순으로 뒤따랐다. 총 16분대로 이뤄진 행렬은 썩씩하게 움직였다. 이 긴 행렬을 이끄는 백 대위는 중위 시절 장교대 소대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중대장이다. 장교대의 중대장은 대대장의 지휘지침이 소대장들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또한 소대장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관리한다.



“가장 앞에서 길을 이끌기 때문에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백 대위는 지난 차수 때 일정변동으로 급히 길을 개척해야 했던 아찔한 기억을 회상하며 “길을 잘 숙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전답사를 많이 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훈육관들은 이번 야외종합훈련을 위해 이미 3차에 걸쳐 사전답사를 다녀왔다.

한편, 교차로가 나타날 때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조교들의 모습이 보였다. 행군 대열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차량통제를 하기 위해서였다. 장교대의 병 조교들은 평소 후보생들을 교육 중에 동작시범을 보이거나 훈련을 위해 다양한 보조 역할을 한다. 이번 야외종합훈련에서는 안전요원의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번 행군이 군 생활 중 마지막이라는 병 조교 오진석 병장은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군대에 오고 싶어 재신검을 받아 공군에 입대했다. 장교대대를 홍보하러 온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훈련소에서 장교대 병 조교에 지원했다. 놀랍게도 오 병장이 장교대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장교대 행군을 하고 싶어서’였다. 멋진 시범을 보이고 박수를 받을 때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오 병장. 그는 마지막 행군에 대한 각오를 “인생에 다신 없을 기회니까, 후배들을 잘 챙기며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장교대를 떠나 교육사령부도 벗어난 행렬은 발을 지나 고개를 넘으며 계속 나아갔다. 대부분의 시간동안 후보생들은 묵묵히 걸었다. 힘든 언덕에서는 군가를 부르며 사기를 높였다. 교육사 군중실에서 위문을 와 나눠준 바나나와 이온음료에 모두들 행복해했다. 휴식시간에 먹는 이온음료는 생명수 같았다.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즐거움을 위해 행군을 하는 거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었다. 점심시간에는 전투식량을 먹었다. 훈육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14시 10분. 행렬은 긴 독방길로 들어섰다. 훈련의 피곤함과 점심식사 이후의 나른함이 겹치는 이 순간, 훈육관들의 무전기를 통해 훈련상황이 전파됐다. 적의 스커드 공격 상황이었다. 소대장들은 미리 챙겨놓은 연막탄을 터뜨렸다. 짙은 보라색 연기가 군데군데 피어올랐다. 후보생들은 급히 폴슌으로 엄폐하고 방독면과 장갑을 착용했다. 이 훈련을 단순히 행군이 아니라 야외종합훈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러한 재난통제 상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보생들이 안전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오진석 병장. 그는 이 행군을 하고 싶어서 장교대 병 조교에 지원했다.



행군 중 적의 스커드 공격을 가정한 훈련상황. 행정소대장 김대희 중위가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화생방 오염지역을 벗어나고 있는 후보생들. 가을벌 아래 완전군장을 메고 방독면을 착용한 채 걷는 것은 강한 체력과 인내력이 요구된다.

적의 공습이 종료되고, 화생방 오염 상황에 따라 후보생들은 방독면을 착용한 채로 독방길을 벗어났다.

독방길의 끝에서 화생방경보가 해제되고, 1일차 훈련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군장 없이 카메라만 메고 쫓아가는 입장에서 슬슬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힘들어하는 후보생을 같은 분대의 후보생이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다. 행렬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고, 두 번의 휴식시간을 더 가졌다. 진주 남강에 해가 걸렸다. 석양을 등지고 조금 더 걸으니 잠시 후, 교육사령부가 반가운 모습을 드러냈다. 지친 기색을 보이던 후보생들도 익숙한 풍경에 원기를 되찾았다.

17시 8분. 장교대 건물이 보였다. 행군 대열은 2열 중대로 대형을 바꾸어 힘차게 걸었다. 소대장들은 후보생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 군가를 지휘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려는 용사! 대열 맞춰 앞으로....” 사관후보생가가 기본군사훈련단에 올려져졌다. 약 8분 후 모든 후보생이 점호장으로 돌아와 집결했다. “인원 및 장비 점검 기타 이상 무!” 분대별로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했다. 서서히 하늘이 어둑해지는 시점에 1일차 야외종합훈련이 무사히 종료되었다.



1일차 훈련 종료를 선언하는 백용훈 대위와 훈육관들.

훈련 종료가 훈육관들의 업무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군기소대장 김동환 중위는 바로 완장을 차고 당직을 준비했다. 2중대장 김준식 중위는 다음날부터 있을 137기의 홈커밍데이 행사 준비를 점검했다. 작전소대장이진 중위도 다음날 행군 코스 확인을 위해 중대본부로 향했다. 후보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요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훈육관들은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했다.

어느덧 취재 일정이 끝나고 복귀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2일차, 3일차 행군에서도 함께 고생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 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고를 기사로 남기는 것이 임무이기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섰다.

힘들고 느리게 걸어온 길을 자동차로 순식간에 지나가며 생각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야외종합훈련을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 단련과 전기전술 연마가 목적이 아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들의 군생활에 분명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훈육관들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마지막까지 애쓸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도 고생할 훈육관들에 대한 응원과 옛 훈육관 선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이 기사가 나가는 시점에 학사 143기는 어엿한 공군장교로 임관해있을 것이다. 금강석을 연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땀으로 연마해낸 새로운 금강석들의 앞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AF



교육사에 도착해 장교대로 향하고 있는 행렬. 오른쪽 하늘에는 일찍 나온 반달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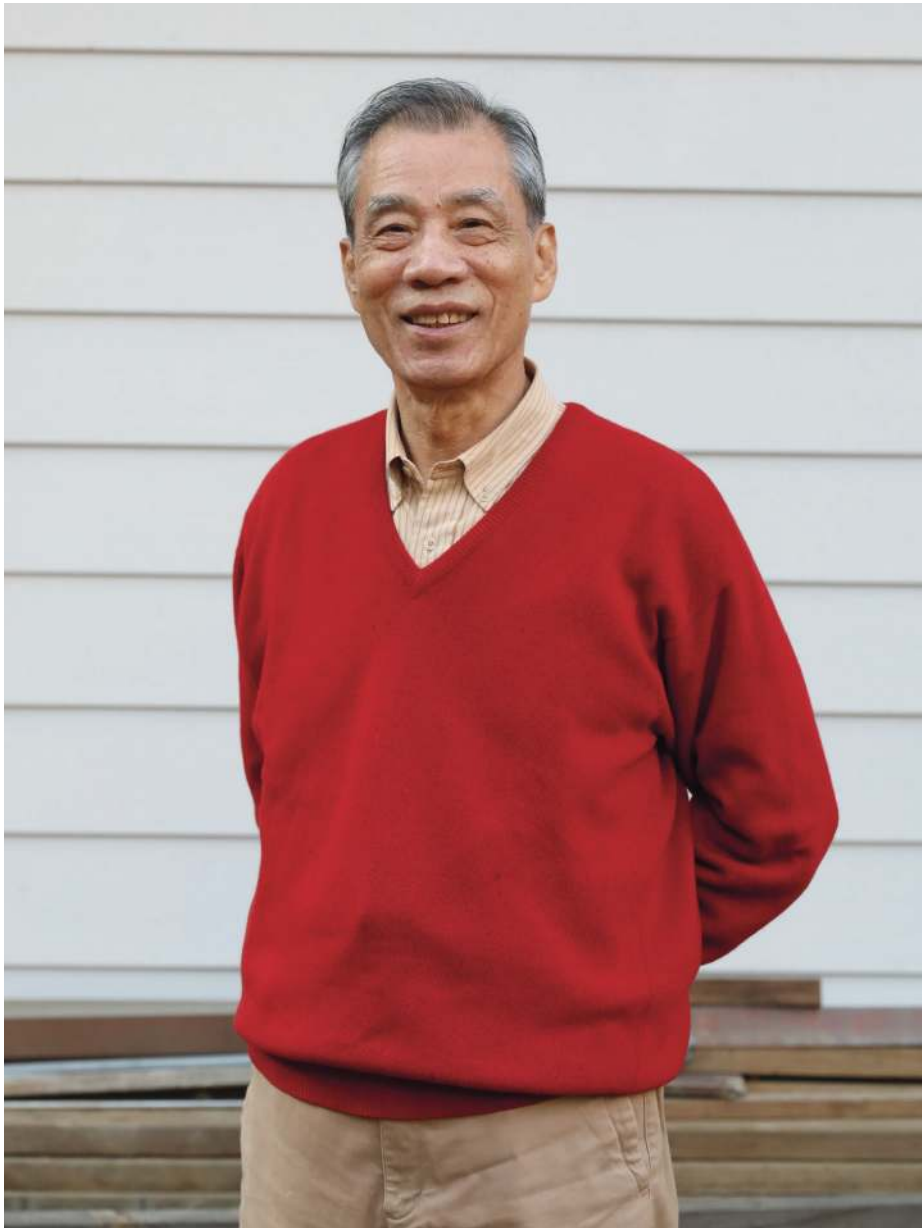
제11화 최성열 예비역 준장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봄 하늘은 아련하고 여름 하늘은 번덕스럽다.
가을 하늘은 그리움으로 차 있고 겨울 하늘은 태초부터 지켜 온 침묵을 고수한다.”

- 최성열 예비역 준장 -

사계의 하늘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 그는 30년 동안 우리 공군에 청춘과 목숨을 바치며 전투조종사로서 3,000여 시간을 비행했다. 그는 계절 따라 변하는 하늘을 누비며 겪은 위험천만한 순간들, 군 생활 에피소드들뿐만 아니라 은퇴 후 가족, 친구들과의 소소한 일상들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글로 써내려갔고, ‘하늘에서는 땅을, 땅에서는 하늘을’이라는 수필집으로 엮어냈다. 때로는 아찔하고 때로는 웃음을 주는 그의 이야기에는 공군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느껴진다. 하늘에 뜻을 두고 조종사의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하늘에서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귀뜸해 주고 싶었던 최성열 예비역 준장. 그만의 생생한 이야기와 비행철학을 들어보았다.

공군과의 인연



11전비 단장 시절

고등학교 시절, 하교 시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효자동 길을 따라 광화문까지 걸곤 했는데, 어느 겨울날 남산 너머로 2대의 제트기가 비행¹⁾운¹⁾을 뿜으며 솟구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전쟁의 양상, 시대적 발전 흐름 등을 깊이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청운의 꿈을 품고 1963년도에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993년에 전역하기까지 30년을 공군에서 전투조종사로 복무하며 대략 3,000시간 정도 비행을 하였습니다. 제3훈련비행단에서 제215비행대대장으로 지냈고, 미공군 AIR WAR COLLEGE 유학 후 귀국하여 한미연합사 정책처장, 공사 생도대장 등을 역임한 후 제11전투비행단장을 마지막으로 전역하였습니다.

1) 비행운(飛行雲, Contrail) 한랭하고 습한 대기 속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남기는 가늘고 긴 구름을 일컫는다. 비행기 구름은 겨울철에 잘 나타나며, 항공기 연료가 연소된 후 연료 속에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와 연료의 일부가 냉각되어 생긴다.

삼대독자였던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입교하였습니다. 고된 훈련과 내무정돈 등 입학 전의 생각과 다른 사관학교 생활에 힘이 들어 끝내 퇴교를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외출을 나가 어머니께 일반대학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 화 한 번 내신 적 없던 어머니께서 ‘사내가 뜻을 세웠으면 어렵다 한들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호된 질책을 하시는 바람에 터벅터벅 복귀하여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동기생을 대표하는 기생회장을 맡게 되어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제반 훈련과 교육이 장차 전투조종사의 자질을 기르는 데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 형식적으로 따라하지 않고 몸에 익히며 더욱 철저하게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 시절에 익혔던 여러 행동절차들은 이제는 제 습관이 되어 나를 형성하고 나라는 사람의 실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제 성품을 형성했고, 그 성품에 따라 제 운명도 결정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군에서 얻은 것이고, 제 존재 가치는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영원한 공군인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군의 의미



T-28 조종교육 과정 시절



1967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4학년 생도시절

비행 철학

공군에서 3,000여 시간을 비행하며 단 한 번의 작은 위급상황과 큰 사고 없이 지냈던 것은 저의 크나큰 행운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비행철학 중 하나는 ‘No well done이 Well done.’입니다. 우리 공군은 비상상황 시 잘 대처한 조종사들에게 웰던(Well Done)상²⁾을 수여합니다. 저는 웰던 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자. (No well done) 즉, 비상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늘 철저히 비행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Well done)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비상상황이거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해 안전운항에 지대한 공헌을 한 조종사에게 주는 상

시공간을 내 것으로 만들자

“시간과 공간은 먼저 가지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비행을 하면서 순간이 영원처럼 느낄 때도 있었고 한 시간이 찰나처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비행을 하며 동서남해를 주름잡기도 하고 백령도로 출격하기도 하면서 한반도가 좁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보니 전역 후에도 삶의 궤적이 다른 사람보다 커지고 시간도 톱툰이 쪼개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쪼개서 쓰면 제 것이 되고, 공간 또한 제가 누비는 영역만큼 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귀촌하여 전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울이나 대전 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저의 시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저의 것으로 하고 스스로 만족하니 이것이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비행을 통해 얻은 습관과 성품이 제 운명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제151비행전투대대 시절

‘항산회’라는 삼성항공 산악회가 저희 집 근처 마곡산에서 등산을 하고 30여 명 정도 집에서 바비큐를 하다가, 그 중 한명이 산 속에서 사는 이유를 물으며 관련된 이야기를 모인 회보에 실고 싶다고 부탁을 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쓴 글이 ‘마누라 잡기와 집터 잡기’인데, 이 글을 쓰고 원고료로 5만원 상품권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나서 삼성포레버라는 잡지에서 같은 기사를 또 실어도 되겠냐는 연락이 와 수락했더니 또 5만원 상품권이 왔습시다. 그렇게 글쓰기에 소소한 재미를 느끼게 되어 글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후란 시인이 외 사촌누님인데 누님께서 인간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수필교실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쓰고 비평을 하는 공부를 하던 중 강사선생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중 전투기를 탄 사람이 몇이나 되며, 그들 중 글을 쓰는 사람이 몇이겠냐.’며 ‘빛을 발하는 소재이다. 예술은 기술의 가지 끝에 핀 꽃이기 때문에, 글 쓰는 재주를 바탕으로 독특한 인생을 담아 글을 공부해보자.’라고 말씀 하였고,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2015년 계간 《에세이문학》 겨울호에 <하늘의 사계, 다시 한 번 날고 싶다>로 등단하여, 공군 생활 중 가장 긴장감을 느꼈던 순간을 작성한 작품 <불시착>으로 에세이피아³⁾ 작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는 ‘문학의 집 서울’, 가톨릭문인회, 한국수필가협회 회원으로 문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 입문



에세이피아 작품상, 등단패

3) 수필가 손광성이 이끄는 일현수필문학회의 수필전문잡지

하늘에서는 땅을 땅에서는 하늘을

올해 초 일흔 다섯 나이에 어떤 이벤트를 해볼까 계획을 세우다 수필집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니 한 평생 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신세를 많이 졌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갚고 고마운 마음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수필집을 내어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더욱이 후배들 또한 저의 글을 읽고 장면들을 새록새록 상기시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투조종사들은 찰나를 사는 사람이라 여유롭게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찰나에서 오는 감성, 무언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찰나 순간순간들을 쫓아가다 보니 신기하게도 그 모든 장면들이 동영상에 보듯 선명했습니다. 수필의 생명은 진정성이라 생각한 저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에서의 나날들과 일상생활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52개의 이야기로 책을 펴냈습니다.



최성열 장군의 수필집, 『하늘에서는 땅을 땅에서는 하늘을』



젊은 날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스스로 씨름을 하고 있던 중 안병욱 박사가 쓴 칼럼에서 추상적인 삶에 대해 묻고 따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피야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통해 저 역시 What is the life가 아닌 How to live로 발상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유유당당호호담담'이라는 인생철학을 세웠습니다. 먼저 한가로울 유(悠), 조종사 즉 하늘의 사나이로서 복잡한 세상 속 다툼에 멀어져 푸른 하늘에 흰 구름 유유히 흘러가듯 그저 여유롭게 인생을 살자. 당당할 당(堂), 군인으로서 눈치 보거나 비굴하게 살지 않고, 사나이답게 떳떳하게 살자. 넉넉할 호(浩), 바닷물이 더러운 물 깨끗한 물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과량듯, 나 또한 이 세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모두 포용하며 살자. 맑을 담(淡),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사는 것이 아닌 맑은 시냇물이 흐르듯이 인생을 깨끗하게 살자는 뜻으로 유유당당호호담담(悠悠堂堂浩浩淡淡)이라는 인생의 길잡이를 세웠고, 지금은 가혼으로 정해 우리 가족들 또한 같은 뜻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은퇴 후 노년을 보낼 집을 지으며 푸른 하늘에 흰 구름 떠가듯 유유히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 집에 '유유당(悠悠堂)'이라는 당호를 붙였고, 늘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유당당호호담담 (悠悠堂堂浩浩淡淡)



‘유유당(悠悠堂)’이라는 당호가 적힌 현판이 집에 걸려있다

고등학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 <한공>이라는 수필이 실려 있었습니다. 찰 한(寒), 하늘 공(空), 겨울하늘을 뜻하는 그 수필을 읽으며 하늘을 동경했고 조종사의 꿈을 꾀었습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 또한 대공을 차고 올라와 대자연의 상대로 누비고 다니며 느낀 생생한 이야기를 교과서에 게재하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듯 많은 학생들이 제 글을 통해 조종사의 꿈을 갖고 하늘을 사랑하길 바라는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노년의 삶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천시에서 지원하는 설봉 서원에서 대금도 배우고 사서삼경(四書三經)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저 바쁘게 살면서 스쳐 지나간 순간순간들을 되새기며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대금 연주 중인 최성열 예비역 준장

공군장병에게 부탁의 말

우선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현역장병들은 군 복무를 하며 힘든 순간들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 보면 그 경험 자체만으로 얼마나 값어치가 큰지 깨달았으면 합니다. 고은 시인 <그 꽃> 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는 구절처럼 정상을 차지하기 위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진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군인들은 대한민국의 호국 간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최후 보루⁴⁾이자 국민의 공복⁵⁾임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보위⁶⁾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랍니다. 따라서 공군 요원들이 능동적으로 군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생각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AF

4)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건축물

5)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무원'을 달리 이르는 말

6) 보호하고 방위함.



그날, 우리 하늘

임시정부의 부뚜막:
『그날, 우리 하늘』 연재를 마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공군 창군 70주년으로 흥성거렸던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국경일을 즈음하여 진행한 국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들은 여느 해에 비해 적잖이 회자되었다. 공군 내에서는 우리의 역사적 뿌리와 전통,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거쳐 발전해 온 여정을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들이 여럿 마련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역사적이었던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공군의 발자취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1년 남짓한 ‘공군사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활동을 통해 항공독립운동, 임시정부의 공군 건설 노력, 창군, 6·25전쟁 그리고 전력 증강 등으로 이어지는 유구한 공군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충칭(重慶)과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모두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10월 말 짧은 휴가를 상하이로 다녀오리라는 계획을 개인적으로 세워두었던 터였다. 공교롭게도 국군의날 특집 다큐멘터리 <충천>을 제작하는 마무리 작업 성격으로 8월 말에 충칭으로 공무출장을 다녀와야 할 사정이 생겼다. 가미솔 더위를 자랑한다는 내륙을, 그것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시기에 가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다. 하지만 동행한 김기동

교수님과 기상단의 전선규 중위 덕분에 즐겁고도 의미 있는 경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 상하이를 방문할 때 충칭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충칭 출장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었다. ‘산성(山城)’이라 불릴 만큼 경사진 지형이 많고 그만큼 계단도 많았던 충칭의 도심. 그 골목을 돌고 돌아 낡은 고층 아파트들 사이에서 임시정부 청사를 찾을 수 있었다. 아이들 위주로 계획을 세웠던 상하이 여행은 프랑스 조계 지역의 이국적 분위기나 동방명주탑 일대의 유명한 야경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참이었다. 투어버스 정류장을 찾던 중, 우연히 봄비는 사람들 사이로 우리말이 들려오는 곳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곳이 바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라는 것을 알아챘고, 곧장 아내와 함께 아이들 손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충칭이든 상하이든, 아무 말 없이 청사의 경내 곳곳을 찬찬히 둘러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울림을 주는 일이었다. 분명 단순한 관람에 그치는 경험은 아니었으며, 이는 그곳을 다녀갔고 앞으로 방문할 모든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것이다. 말 그대로 임시로 모인, 빼앗긴 나라의 지도자들이 기거하며 업무를 보던 초라한 공간들을 들여다보면, 독립을 위

한 그들의 의지와 활동들에 감사하기에 앞서 이역에서 일상을 영위해야 했던 그들의 쓰라린 삶의 역정이 떠오른다. 당연히 여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전히 뇌리에 남아 있는 장면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층 한 칸에 있던 부엌이다. 부뚜막에는 아궁이 하나를 뚫고 그 위에 가마솥 하나를 걸어 놓았다. 그리고 찬장 하나가 놓여 있고 세간살이라고 할 것도 없는 집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당시 그곳에 상주했던 인원이 얼마나 되었고, 몇이나 같이 생활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살림을 꾸려가야 했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눈을 붙여야 큰일도 할 수 있는 법일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소설가 김훈이 ‘밥’에 대해 언급한 다음과 같이 구절이 떠올랐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진저리나는 밥이라는 것이다.¹⁾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 없다면 아무리 명분이 중요한 일이라도 성사되기 어렵다. 임시정부의 부뚜막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투쟁을 벌이고 활발한 외교활동을 하고 미래를 위해 민족정신 교육에 힘썼던 일들도 이 간단한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공군의 역사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항공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서 싸운 하늘과 공군에 대한 원대한 꿈은 해방 후 1949년에야 조그마한 결실을 맺었다. 이제는 익히 알고 있는 창군 7인의 주도 아래 미약하나마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후로도 공군이 걸어온 역사는 결코 기록하지 못했다. 창군 1년도 안 되어 6·25전쟁을 겪었고 내외의 악조건 속에서 조직을 확충하고 전력을 증강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굵직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작은 조각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1월부터 연재한 『그날, 우리 하늘』은 공군의 70년 역사 속에서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조금은 떨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모습들에 한 사람이라도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다. 이 작업은 공군의 새로운 역사적 지식을 발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에 몰두할 때 누군가는 임시정부의 부뚜막 앞을 지켰듯이, 오늘 우리 하늘을 지키는 공군의 작전 수행 그 이면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이들을 역사로 기록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AF



<상하이 임시정부의 부뚜막과 함께 기억에 남는 총칭 임시정부의 한인촌 3·1유치원 개원 기념 사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다.>

1) 김훈, 「밥」, 『라면을 끓이며』, 문학동네, 2015, 71쪽.



중부지역 공군력의 핵심! 전승을 보장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최정예 전투비행단!

제16전투비행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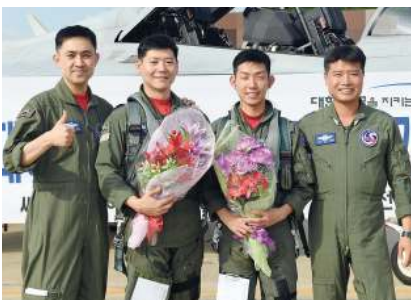
최정예 전투조종사 양성의 요람, 제16전투비행단은 훈련조종사가 진정한 전투조종사로 거듭나는 곳이다. 영공을 수호하는 모든 전투조종사들의 고향인 제16전투비행단에 대해 탐구해보자!



▲ 제16전투비행단 기지 공사사진

대한민국 최초로 순수 우리 자본·기술로 만든 중부지역 공군력의 핵심

군 현대화 및 전력증강계획에 의해 공군 항공기가 1975년 이후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력 분산을 통한 생존성 향상과 즉각 응징 능력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졌다. 이에 공군은 항공 전력을 재편성한 후 효율적인 항공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중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예천에 1976년 8월 1일 작전사령부 예하 제16전투비행단을 창설하였다. 예천기지는 최초로 순수 대한민국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건설한 전투비행단이다. 동·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항공 전력은 예천기지 건설 이후 분산 배치되었다. 이로 인해 중부지역 영공방어 취약점이 개선되었으며, 생존성과 반격능력 향상으로 공군 전력의 극대화되었다.



▲ 115비행대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 달성

최정예 전투비행단

16전비는 창설 초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병들이 임무수행에 매진한 결과, 창단 3년만인 1978년 공군 최우수부대로 선정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6회에 걸쳐 전군 최우수부대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 예비군의 날 유공 및 군 환경 보전 최우수부대, 2009년~2016년 작전지휘태세 종합검열 최우수부대 및 2017년 안전 최우수 부대 선정, 2018년 제115전투비행대대 10만 시간 무사고 달성, 2019년 FA-50 무결함 비행지원 500회 달성 등 혁혁한 성과와 빛나는 업적을 달성했다. 이와 같이 16전비의 모든 부대원들은 공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공군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방위 핵심전력으로서 오늘도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19-1차 LIFT 수료식

전투조종사 양성의 요람

제16전투비행단은 훈련조종사들이 진정한 전투조종사로서 성장하는 요람으로 수많은 조종사들을 교육배출하고 있다. 창설 이듬해인 1977년부터 고등비행훈련을 통해 전투조종사를 꾸준히 양성해왔으며, 2002년에는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를 배출했다. 2011년 전술입문기 TA-50 1호기 도입 이후 2012년부터 TA-50을 활용한 전술입문과정(Lead-in Fighter Training)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12-1차 9명 첫 수료 이후 현재까지 298명의 전투조종사를 양성했다. 또한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 수출국 조종사들의 비행교육을 수탁하여 우리 공군의 우수한 비행 노하우를 전파하고 국산항공기 우수성 홍보 및 항공기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 FA-50 파이팅 이글

최초의 국산 전투기 FA-50 파이팅 이글

FA-50 파이팅 이글은 TA-50을 개조한 최초의 국산 전투임무기로서, 현재 TA-50 골든 이글과 함께 제16전투비행단의 대표 기종이다. FA-50은 TA-50의 장점을 이어받아 짧은 이륙거리, 최신 항전 장비와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 항공 역학적 설계 등을 갖추었으며, 정밀유도무장능력, 레이더경보수신기, 디스펜서, 야간투시장치 등을 더해 전투능력과 생존성을 강화했다. 2016년 3월 전력화가 이루어진 FA-50은 적의 국지적인 도발에 대비하여 방공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높은 성능과 안정성으로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어 대한민국 항공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 병사의 날 달리기 대회

선진 행복 병영 문화 조성

16전비는 국방개혁 2.0이 추구하는 변화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사 자치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정착과 악폐습 철폐 및 병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가족초청행사, 분기별 스포츠 대회, 병사의 날 운영, 우리는 하나 Day 등을 통해 병사들의 병영 생활 적응을 돕고 선진 군무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 초임간부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 업무 매뉴얼 '계장의 정석' 배포, 의사소통 창구 '위관단' 제도, 군인가족 행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행복 병영 문화를 조성하고 장병 및 군무원들의 업무 몰입을 높이고 있다.



▲ 농촌일손 돕기

함께하는 이웃, 신뢰받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은 신뢰받는 공군상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웃이 되고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병영체험과 부대방문 프로그램, Space Challenge, 전문직업인 진로체험 교육지원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국가관 및 안보관 정립을 돕고 공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랑을 적극 실천하고자 다사랑 장학회를 통한 장학금 전달, 부대 인근 지역주민 대상 군관 합동 무료진료, আমি용봉사, 분기별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제16전투비행단은 지역축제 봉사, 재해재난 지원도 늘 솔선수범 참여하며 주민들에게 기쁨 떠나 슬픔 떠나 함께하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F**



단(부대) 마크

빨간색: 비행단의 무궁한 발전과 떠오르는 햇불처럼
정열적이며 선봉자적인 임무 완수 의지 표현
파란색: 신속하고 강력한 최상의 전투력

청색: 공군의 임무영역인 푸른 창공을 표현
지구와 비행: 지구와 우주를 아우르는 우리의 꿈
백색원: 화합과 단결

부대 연혁

- '76. 08. 01. 제16전투비행단 창설
- '76. 12. 21. 제202전투비행대대 예속변경¹⁾
- '77. 09. 20. 제205 전투비행대대 창설
- '78. 02. 15. 제206 전투비행대대 창설
- '86. 02. 21. 상주(낙동)파견대 인수
- '89. 05. 20. 영주 비상기지파견대 신설
- '02. 09. 26. 최초 여성조종사 배출
- '12. 07. 27. TA-50 제115전투비행대대 전력화
- '16. 03. 21. FA-50 제202전투비행대대 전력화
- '18. 06. 29. 115대대 10만 시간 무사고 달성

1) 제202전투비행대대는 1976년 8월 대구기지에서 대대가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예천기지로 이동 및 예속변경이 이뤄짐.



기획
6급 조장래
(미디어콘텐츠과)



사진
하사 노현우
(5비)



하사 김은진
(5비)



상병 김성민
(5비)

공군소담 空軍小談

- 신발 -



신발이 어떻게 필수품이 되었는지는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신발을 신어야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기준을 두고 신발을 선택한다. 성별, 연령, 기호, 용도, 유행 등... 당연히 신발의 종류도 다양하기 마련이다.

공군에도 다양한 신발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들이 많다. 산 더미처럼 쌓여있는 온갖 폐물자 사이를 중형무진하는 장비물자대대 요원들을 본 일이 있는가? 연료 냄새가 짙은 작업장에서 미끄러운 작업장 바닥을 분주하게 오가는 정비사들의 발을 본 적이 있는가? 이번 화에서는 공군의 활동적인 임무현장에서 착용하는 신발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기(士氣)를 올려주는 아이템

공군에는 무겁고 날카로운 물체로 가득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있다. 바로 초과품 관리를 담당하는 장병들이다. 수명을 다한 온갖 군수품들은 초과품 저장소에 모였다가 처리된다. 초과품을 관리하는 장병들은 지급되는 전투화에 특별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물이 발 위로 쏟아지거나, 날카로운 못이나 장비 모서리에 긁힐 위험이 도사리는 이곳에서, 전투화는 신뢰의 상징이다. 투박한 전투화가 지난 탁월한 내습성과 내구성은 장병들이 임무 속으로 마음 놓고 뛰어 들 수 있도록 사기를 올려주는 아이템이다.



안전한 전역을 위한 필수품

식당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은 장화가 곧 전투화다. 장화를 착용하면 물기가 많아 미끄러운 취사장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일할 수 있다. 또 취사장에서는 뜨거운 물이나 기름이 튀는 경우에도 장화를 착용한 상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급양병들에게 장화는 안전한 전역을 위한 필수품이다.



소중한 방패인 신발

수송대대의 차량 정비사들은 작업장에서 필수로 안전화를 착용한다. 정비 안전화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산재한 작업장에서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화된 신발이다. 안전화가 없으면 무거운 수리부속을 옮기거나 분해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을 경우 심각한 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안전화는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발가락 부분에 철제 보호물이 들어 있어 승용차가 지나가도 끄떡없어서, 정비사들에겐 발을 지켜주는 소중한 방패가 된다.



신발을 사용하는 사람들

병장 백재훈 제5공중기동비행단 보급대대 장비물자관리중대



저는 장비/초과품저장반에서 7종에 해당하는 장비들과 총기, 그리고 수공구와 화생방 물자를 관리하고, 다른 부서에서 나온 폐품, 초과품들을 반납 받아 보관·매각하는 업무를 합니다. 저의 임무에서 전투화는 항상 고마운 보급품입니다. 비가 오면 초관소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기는데 전투화의 방수기능 덕분에 그 위를 지나다녀도 제 발이 축축해지지 않습니다. 치장총기 작업이나 화생방물자 작업을 하다가 박스를 발에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전투화가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다. 간혹 폐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마치고 나면 전투화가 날카로운 금속이나 유리조각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전투화를 신었기 발 부상 걱정 없이 작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물건을 옮기거나 바쁘게 움직일 때 전투화 끈이 풀려있으면 걸려 넘어져 다칠 수 있으므로 항상 전투화 끈이 잘 묶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투화는 사기를 올려주는 아이템이다.

병장 이시진 제5공중기동비행단 복지대대 급양중대



저는 병사식당에서 조리과 전처리, 배식 및 식당 청결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뉘어 2교대로 근무합니다. 식자재들을 조리에 사용하기 직전으로 만드는 전처리장, 취사와 세척을 담당하는 취사장, 배식을 담당하는 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일을 합니다. 월, 수, 금에는 1,300명 분의 식자재를 조달해와 나르고 화, 목에는 취사장 및 식당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하는 일은 다양해도 장화를 착용하는 일은 한결같습니다. 특히 학교 시절에 '조리도 전투다.'라는 문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장화는 전투화입니다. 장화는 단단하고 열에 강한 소재로 되어있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있어 물기가 많은 취사장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취사장에서는 뜨거운 물이나 기름이 튀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장화를 착용한 상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의관이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듯 저는 하얀 장화를 착용하고 매일 취사장으로 향합니다. 저의 장화는 정해진 시간에 병사들의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고마운 보급품입니다.

#장화는 나를 지켜주는 필수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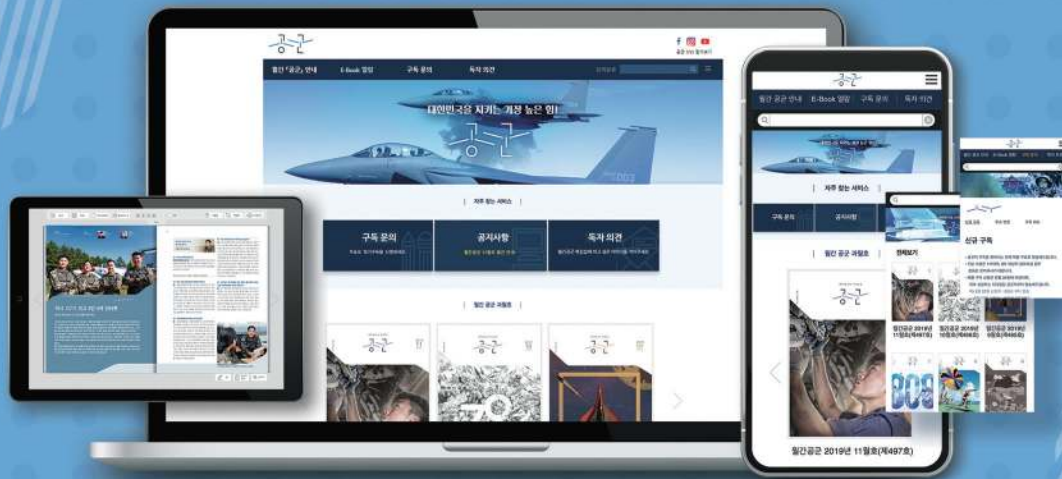
상병 최수창 제5공중기동비행단 수송대대 정비중대



저는 정비중대 차량정비반에 입고된 차량을 점검하고 부품을 교환하는 등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비병들에게 안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비업무와 무관한 사람들에게겐 무겁고 불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정비병들에게엔 특별한 보급품입니다. 작업 중에 튀는 기름을 막아주고 못과 같이 뾰족한 물체로부터 긁힘을 방지해주며 무거운 낙하물로부터 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등 아주 고마운 물건입니다. 안전화는 일반적인 등산화의 디자인에 작업자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이 추가된 신발입니다. 일반 신발과 다른 가장 큰 특징으로 안전화의 앞부분에는 쇠가 들어있습니다. 이 쇠는 작업자의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승용차가 밟고 지나가도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반복되는 정비임무를 수행하면서 안전화에 대한 신뢰가 배어있습니다.

#안전화는 든든한 방패다.





월간



E-book 자료관

공군의 월간지를 온라인에서!

www.afzine.co.kr

공군지 E-Book 열람은 물론 무료 구독 신청, 주소 변경도 가능합니다.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접속 방법 (택 1)

1. 검색사이트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 공군'을 검색하세요.
2. 스마트폰 카메라로 오른쪽 QR코드를 찍어보세요.
3. 주소창에 www.afzine.co.kr 을 입력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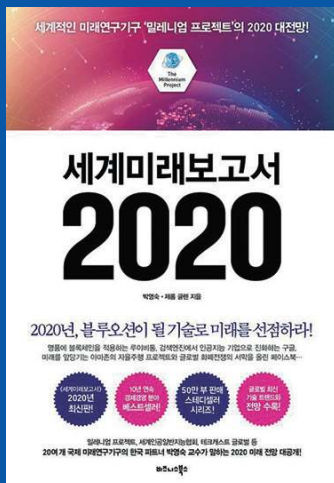


1·1·1 독서

1·1·1 독서운동은 1인 1개월 1권 이상 독서하기를 목표로 공공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월간 「공군」이 추천합니다!

지휘관 추천도서



[사회] 미래영화속의 그 숫자, 2020년

2008년부터 시작된 미래예측보고서 '세계미래보고서' 시리즈의 최신판인 '세계미래보고서 2020'. 금융, 제조, 유통, 자동차,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미래를 바꾸고 있는 핵심 기술들이 현재 어디까지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고, 이 기술들이 가져올 사회 및 산업 변화, 일자리 문제 등을 짚어보며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과거 사람들의 상상 속이나 존재하던 그 숫자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고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 이미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큰 이슈인 블록체인부터 최고 부상 기술인 인공지능을 비롯해 5G, 가상현실, 생명공학 부문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살펴보고, 이와 연결해 노화 역전과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다룬다. 또 이러한 미래 기술들에 따른 도전 과제와 그 대안들을 제시해 창의적인 기업들의 비전,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계미래보고서 2020 / 박영숙, 제롬 글렌 / 비즈니스북스 / 10월 / 376p / 16,500원

일반장병 추천도서



[사회] 인간의 영역을 사수하라

굵직한 베스트셀러를 남긴 이지성 작가가 '인공지능'으로 돌아왔다. 해박한 인문학적 지식과 인공지능에 대한 오랜 기간 공부를 통해 전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통찰이 돋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파급력 큰 위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 즉 '회색코벨소'는 단연 인공지능이다. 그에 따르면, 앞으로 세상은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리는 계층과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계층으로 구분된다. 또한, 유발 하라리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경고하듯,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국가일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이 코벨소를 인지하고도 대비하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의 강대국들의 교육기관에서 10여 년 전부터 인공지능을 대비한 교육이 이뤄진 것과 비교된다. 저자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를 소개한다.

에이트 / 이지성 / 차이정원 / 10월 / 308p / 17,000원



2019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

2019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가 10월 31일(목), 11월 7일(목) 2차례 대천 사격지원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방공유도탄 부대의 실질적 전술기량을 평가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사격대회에서는 천궁, 미스트랄, 패트리엇 등이 발사되어 목표물을 정확하게 격추함으로써 빈틈없는 영공방위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은 장비 이동 및 전개훈련, 실사격을 대비한 장비 점검 및 실질적 작전훈련을 통해 영공방위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였습니다.







동계 작전대비태세 현장지도

참모총장은 11월 7일(목) 화악산 공군 부대를 방문해 동계 작전대비태세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격오지 부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하는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참모총장은 부대장으로부터 작전 및 부대 현황을 보고 받고, 주임원사, 으뜸병사 등 부대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격오지 근무로 인한 애환과 어려움을 경청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힘준한 오지에 위치한 지리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동북부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이 믿음직스럽다.”며, “조국영공수호와 영공방위의 최일선에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완벽한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군역사 학술회의 주관

참모총장은 11월 7일(목)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시행된 『제6회 공군역사 학술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공군역사재단과 공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학술회의는 공군의 기원과 창군 이후 발전 과정을 학술적으로 조명하여 공군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군 내외 역사 전문가 2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참모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공군 전 장병은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을 만들어 오신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헌신과 애국심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확고한 전방위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최강의 정예공군 육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수사령부, 국가품질경영상(대통령표창) 수상

군수사령부는 11월 13일(수)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리더십, 운영관리 중시, 지식경영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군 최초로 국가품질경영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제1전투비행단, 민·관·군 합동 재난대응 훈련

제1전투비행단은 10월 30일(수) 남성대 어린이집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민·관·군 합동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제3훈련비행단, 정비사 화재예방 교육

제3훈련비행단은 11월 12일(화) 소방구조중대 소방 운영반장 김진규 원사가 교육을 담당하여 항공기 사고를 가정해 정비사들의 초기 화재 진압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관 합동 누유방재훈련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10월 29일(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대저생태공원 일대에서 '19년 군·관 합동 누유방재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제8전투비행단, '19-3차 전투태세훈련(ORE)

제8전투비행단은 11월 4일(월)부터 7일(목)까지 군사대비 태세 확립 및 전시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19-3차 비행단 전투태세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1전투비행단, 정비사 전투지원 경연대회

제11전투비행단은 11월 14일(목) 정비사 임무지원 능력 향상 및 팀워크 평가를 위해 전투지원 경연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공군인의 편지

늦었지만, 생각보다 연약하였던 나의 부모님께

From. 제17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헌병대대 기동중대 기동2소대

병장 주재원



To. 부모님

4월의 마지막 즈음 저의 공군 합격 최종발표를 받고나서의 부모님의 표정이 아직 잊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군에 입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느끼는 기쁨과 한 달 뒤엔 짧지 않은 시간동안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점점 다가오는 시간에 느껴지는 서운함과 아쉬움이. 저 또한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 느껴졌지만 언젠간 가야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부모님 앞에서 덤덤한 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덤덤한 척을 한다고 했지만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입대를 한 달 남겨두고 나서야 같이 여행도 자주 가려고 하고 영화도 많이 보려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아직도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들로 자리를 잡았지만, 한편으로 그동안 표현을 잘 해드리지 못 한 것과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던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입대를 일주일 남겨두고 마지막으로 떠난 군산여행에선, 다가오는 입대에 대한 초조함과 떠나보내야 할 것에 대한 미련이 크게 느껴져서인지 아니면 아들과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아쉬움과 서운함에 젖어있는 부모님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희끗한 서글픔에서인지 무척이나 우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대하는 날 우울한 심정을 대신하듯 잿빛으로 물든 하늘에 추적한 비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훈련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조차 저는 애써 덤덤한 척을 했지만 바짝 마르는 입술과 새어 나오는 미적지근한 숨을 입 밖으로 토하며 진주로 향하는 우울한 차창만을 쳐다보고 있었으니 아들을 모르실 리 없는 부모님은 제가 착잡하다는 걸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소에 도착하고 입대를 위해 대연병장으로 걸음을 돌리기 전 마지막으로 안아본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은 그렇게나 따뜻할 수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그렇게 가날플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처음으로 보았던 아버지의 눈물은 그렇게나 연약해보여서, 참아왔던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대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입대를 한 지 1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훈련소에서의 훈련들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시간도 부모님의 눈물과 품을 뒤로하고 입과 한 날 보다는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그때 심정을 고백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저를 더욱 굳세어질 수 있게 힘이 되어주신 부모님께 이렇게 써서 올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트라넷 : moa5819@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봄부터 겨울까지 흐른 시간동안

From. 제18전투비행단 단본부 인사행정처 행정과
일병 이동호



To. 가영

어느새 시간이 10월도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어. 평소 문자로 나누던 이야기를 편지 속에 담으려고 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하는 생각만 맴돌고 있어. 그동안 아프진 않았는지, 나한테 말은 안했지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평범했는지 여러 가지 소식이 궁금해지네.

5월의 어느 날, 아직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더운 날씨가 훈련소를 감싸고 있었어. 그 때 나는 입대를 하게 되었고 여러 친구들에게 인터넷 편지를 써달라며 인사를 하고 있었지. 너한테도 그 말을 했고, 너는 당연한 것이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 그리고 절대 흐를 것 같지 않았던 5주의 시간이 흘렀어도 너의 편지는 받지 못했어. 어딘가 서운한 내 마음을 알았는지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주었잖아. 무시하듯 내 부탁을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었기에 고마운 마음에 괜찮다며 서로 웃었지.

그렇게 시간은 훌쩍 지나가버렸고 그달 말, 너는 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접어들었고 나는 강릉 18전투비행단에 배속을 받게 되었어. 나는 처음 환경에 적응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도 전입신병생활

관에서 했던 전화로 해주었던 '잘 할 수 있어' 라는 흔한 한마디가 지금도 생각날 만큼 특별하게 다가온 것 같아.

여름을 직감시켜주는 태풍이 오던 첫 휴가 때 기억나? 어쩌면 입대하기 전보다 우린 더 가까워져서 자주 만나게 되었잖아. 처음으로 같이 술도 마시고, 깊은 진담도 나누면서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처음 만났던 우리가 서로 몰랐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던 계기가 되었어. 일주일 남짓의 짧은 휴가였지만 나눴던 이야기나 추억은 어느 여행보다 길게 느껴졌어.

2년이라는 시간이 길지만 '말이 쉽다.' 라는 것처럼 나름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 너도 여름부터 시작된 학기가 어느새 겨울을 향해 가고 있잖아. 나는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가끔은 가족, 친구들이 보고 싶어 남들과는 다른 밤을 보낼 때가 있어. 그럴 때 마다 드는 생각은 '시간은 우리를 지켜보지 않고 흘러가는구나.'였어. 그래서 이 순간이 어쩌면 다른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기며 지나고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혼자였고, 생각의 중심이 오로지 나였다면 이 생활이 힘들었겠지? 무엇보다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멀리 떨어져있는 가족들과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 진심으로 고맙고 너의 매일이 행복하기를 바랄게.

우리 계속 잘 지내자.

자랑스러운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축하하며

From. 제16전투비행단 단본부 법무실
일병 최일근



To. 준하

4월 15일 입대하는 나에게 잇몸을 보이며 웃었던 네 모습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네가 입대하는 날이 다가오는구나.

무더웠던 여름이 한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시리게 느껴지니 이제 너도 갈 때가 되었구나. 내가 입대할 당시만 하더라도 너는 아직 멀었다고 좋아하던 모습은 어디가고 입대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초조해지는 너의 모습만 남았구나. 군대에서 선임들은 어떨까? 내가 군 생활은 잘 할 수 있을까? 2년을 어떻게 보내지? 내 여자친구가 날 두고 바람 피우진 않을까 생각하며 잠 못들 너의 모습을 보니 마냥 고소할 것 같은 내 마음이 별로 편치 않구나.

내 친구 준하야.

나도 군생활이 많이 남았지만 군생활이라는 게 막상 와서 보면 별거 없는 거 같아. 훈련소를 들어가기 전 했던 수많은 걱정들과 생각들이 입대 후 일주일부터 서서히 사라지더니 훈련소를 수료하니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새로운 나를 발견했어. 주변 형들이나 선배들이 군대에서 2년은 시간낭비라는 말을 많이 들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자부심, 또 군대에서 선임과 후임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견문을 넓히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자기계발에 매진할 수 있다는 점이 군생활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2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낭비되는 시간일수도 있지만 나는 자기계발 및 애국심 향상의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어학공부와 전공 공부 및 국가관 형성에 매진하고 있어.

내가 일병이 꺾이는 순간 너는 입대를 하는구나. 매일 너에게 군대 가기 싫다고 전화가 올 때마다 비웃으면서 놀리지만 한편으로는 훈련소에서 고생하고 있을 너의 모습이 약간 걱정되기도 해. 옛날에 수술했던 무릎이 심해져 수도 병원에 가진 않을까, 재할 때 힘들었던 너의 모습이 떠올라. 그래도 너는 운동신경도 있고 건강하니까 무사히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을 거야. 군대에서는 몸 건강하게 제대하는 게 최고니까 너의 몸은 네가 잘 간수 했으면 좋겠어. 네가 훈련소 가는 전날 내가 휴가 나가서 잘 배웅해줄게. 그럼 11월에 보자구나. 내 친구 준하야. AF

책 읽는 공군

장병참여 독후감

『마션』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아남는 방법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로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듯이 호랑이를 만나면 정신을 바로 차리기가 참 힘듭니다. 호랑이가 주는 압도적인 두려움에 대부분의 사람이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마주했을 때뿐만 아닙니다. 절재절명의 순간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가 주는 두려움에 당황하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무력이 옹게 발휘되기 위해, 공군은 오늘도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마크는 첫 장 첫 문장에 나와 있듯, 심하게 망한 상태입니다. 그는 화성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그가 살아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호랑이와 마주한 대부분 사람과 달리 정신을 바로 차렸습니다. 그는 543(화성)일 동안 홀로 살아남았고, 결국 구조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라면 공군의 핵심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 이 책을 보면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가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마크는 화성이라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끊임없이 도전하여 살아남았습니다.

마크가 화성에서 생존하는 데에는 그가 지구에서 가지고 있던 전문 지식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와 나사간의 팀워크로 인해, 마크는 좀 더 수월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 구조를 위해 우주비행선 팀원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위에서 서술하였듯, 이 책에는 공군 핵심가치가 모두 드러나 있지만, 저는 도전이라는 측면에 좀 더 집중해 서술하려 합니다.

문명은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문명의 개척자들은 황량한 자연을 개척하며, 여러 자연재해와 맞서 싸우며 그들의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마크 또한 이러한 모습과 닮았습니다. 물기 하나 없는 땅에 식물을 심기 위해 노력하고,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모래폭풍에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의식주, 하나하나 모두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화성에 혼자 남겨졌을 때, 용기를 잃지 않았고, 앞에 놓인 과제들에 열정적으로 임했으며, 그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재해가 찾아와도 그는 계속하여 인내하였으며, 부정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기본군사훈련단에서 공군의 도전정신을 빛낸 예로 김영환 장군의 팔만대장경 수호 사건을 배웠습니다.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위협하는 문제에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자세를 공군이 얼마나 중시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영환 장군과 이 책의 마크처럼 대한민국 공군 모두가 자신의 앞에 닥친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8135부대
일병 안희섭

『마션』

앤디 위어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아들러 심리학 입문』

- 용기, 믿음을 넘어 협력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생으로서의 생활까지... 모든 순간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포기하려 했던 적이 많았다. 심지어 군에 입대하며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3개월의 시간동안 이런 생각을 수백 번 했던 것 같다. 화생방 훈련을 받기 위해 가야 했던 끝없는 오르막길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유격 체조, 그리고 마치 바다처럼 펼쳐진 너무나도 길던 행군 길은 지금도 잊히지 않을 만큼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다고 할 수 만은 없는 내가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공군 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지니지만, 한편으론 어떻게, 어떤 원동력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내 스스로의 인생이었지만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다. 단순히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복무한다고 하기엔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어야 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이다.

『아들러 용기의 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바탕으로 살아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표출하려고 하고 행동하려 하기에, 그것을 서로 화합시켜 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서로 간의 관심과 이해, 협동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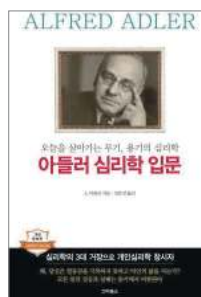
‘나 혼자 최선을 다했다, 그로 인해 좋은 결과의 보상은 반드시 나에게 뒤따라야 한다’와 같은 사고를 수없이 많이 했었다. 이런 사고로 버티다보니 어느새 많이 지쳐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다. 남들을 위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군에 와서 난 정말 많은 도움을 주변 분들로

부터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다. 포기하려 했던 순간마다 내 주변엔 나약한 자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기와 동료들이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다는 마음에 더불어 응원을 받고, 내가 격려하기도 하며, 서로가 서로의 좋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순간을 목도할 때면, 최선을 다했던 과거가 조금은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

꿈을 이루는 것에만 집착하고 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 지치게 되는 것 같다. 생각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에서 찾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연애, 결혼,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닐까. 아들러는 심리학의 내용을 인용하여 개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던 듯하다. 요즘 내 인생도 그렇다. 점차 주변에 계신 분들의 소중함을 더 없이 느끼는 날들이다. **AF**

글
8217부대
중위(진) 조의영



『아들러 심리학 입문』

알프레드 아들러 지음
스타북스 펴냄



우주의 이해



UNDERSTANDING THE SPACE

우주작전 - II

우주패권을 꿈꾸는 각 나라의 우주전력

우주공간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조기경보위성, 킬러위성, 레이저 무기 등 우주공간을 사용하는 우주전력들이 개발 중인 가운데, 이번 호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주력을 경쟁하는 타국의 우주전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우주전력과 그 미래에 대해 알아보자.

타국의 우주전력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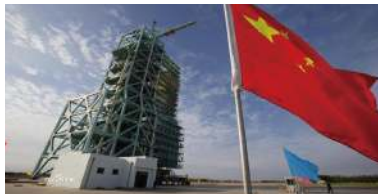
〈미국 조기경보·우주감시 레이더〉 출처 : 미공군우주사령부



〈무인 우주왕복선(X-37)〉 출처 : 미공군우주사령부

우주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은 막강한 우주전력 운용능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패권국가로서 국방 우주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지상으로는 우주 레이더, 레이저, 전자광학 감시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감시·정찰·통신·항법·조기경보 등 전 범위에 걸쳐 130여 기의 군사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 우주왕복선, 최첨단 우주공격 무기 개발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설하여 안보분야와 민간 상업분야를 포함하는 국가우주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군성 예하에 우주군 창설을 지시하였다. 2019년 8월 통합전투사령부 수준의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각 군의 우주작전 기능을 통합해 운영 중이며, 국방부의 지속적인 우주분야 예산투입, 전력증강과 조직인력 보강에 힘쓰고 있다. 또한 우주강국 중심의 무분별한 위성 발사에 따른 우주교통체증(Space Traffic Jam)과 우주잔해물 충돌·낙하위험 문제들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전 세계 20여 곳 이상의 지상배치용 광학·레이더 우주감시네트워크 체계를 공동 운용하면서 우주정보 상황인식 공유를 통해 우주에서와 지구촌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



〈중국 우주센터〉 출처 : 중국국가항천국



〈달 탐사 중계위성(창어 1호)〉 출처 : 중국국가항천국

중국은 국방주도 우주개발을 통해 '우주굴기'에 도전하고 있다. 2016년에 공군 조직과는 별도로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임무를 담당하는 전략지원군을 창설하면서 군사 우주전략을 국가 우주전략에 반영하여 군 주도로 국가적 차원의 우주개발과 조직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주요 우주개발 사업으로는 독자 위성항법체계인 베이더우(北斗)를 구축하고 2020년대 중반 우주정거장(톈궁) 운용을 위해 준비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탐사를 성공하며 달의 자원 선점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군사적으로는 장차 우주전장화에 대비하여 정찰위성의 운영을 증가하고 자국 위성의 방어능력을 강화하면서, 타국 위성활동 저지를 위한 레이저 위성요격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며, 현재 정찰, 통신위성 등 70여 기의 군사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위성 무기체계, 레이저 무기 등 우주무기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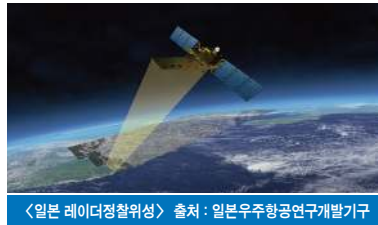
〈러시아 우주발사체 Soyuz〉, 출처: 러시아항공우주군



〈항법위성 GLONASS〉, 출처: GLONASS

1950년대 우주개발 시대는 미국과 러시아의 무한경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 러시아는 1990년대 경제 쇠퇴로 우주 분야 투자가 감소하여 지난 10여 년 간 중국에 비해 위성 발사수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재도약의 기회를 모색 중이다. 2015년부터 항공우주군을 창설하여 그 예하에 공군과 우주군을 별도로 구성하고, 전략우주방어사령부는 군의 우주작전 수행범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우주사업으로 감시정찰위성, 통신항법위성(GLONASS), 조기경보위성, 킬러위성 등 군사위성운용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상배치용 위성감시 및 레이저 요격시스템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는 우주 통제체계 현대화 작업을 통해 한때 우주 중주국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일본 레이더정찰위성〉 출처: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항법위성 QZSS〉 출처: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일본은 2008년 우주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을 개정하면서 안보와 군사목적의 우주이용을 허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8년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대강에 사이버, 전자파 분야와 함께 우주분야의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넣어 우주 방위분야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우주 군사조직은 항공자위대 산하에 우주영역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100명 규모의 우주부대가 2022년까지 창설될 예정이다. 주요 우주사업은 미국의 GPS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23년을 목표로 독자적인 국지항법위성 체계(QZSS)를 개발하고, 우주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에서 우주를 감시하는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도입을 추진 중이며, 우주기반 우주상황인식 위성 개발도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우주 패권을 확보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등 우주영역 군사적 이용준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전력



〈공군 우주정보상황실〉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주개발을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과학실험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통신위성인 무궁화위성과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위성 등을 민간 겸용 시리즈로 제작하여 우주로 쏘아 올렸고, 2008년 우주인 배출사업, 2009년부터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등을 통해 국가 우주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우주전력과 비교했을 때 아직 우주전력이 충분히 갖춰져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방부의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근거로 국방 우주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공군은 공군우주력 발전을 위해 우주 관련 조직을 구축하고 우주작전 기반수행체계의 단계적 확보와 합동작전에 요구되는 우주작전 수행능력 구비를 통해 국방분야 우주력 발전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은 2015년 계룡대에 창설되어 국가차원의 우주상황인식을 통해 우주위협에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찰위성, 지상기반 우주감시체계, 우주기상 예·경보 체계 등이 있으며, 특히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의 전력화를 추진하여 올해 9월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초소형 위성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군 전용위성 운영 등에 주력하고, 국제 달 탐사 프로젝트와 같은 선진국과의 포괄적인 우주개발 참여 등을 통해 국가 우주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갈 계획이다. AF

생활 타이포그래피 하기 쉬운 실수_작업편(하)

이번 화와 다음 화에서는 디자인 초심자가 하기 쉬운 실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수1. 사진 위의 글자가 잘 읽히지 않는다.

사진 위에 글자를 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진과 글자의 조화는 물론, 가독성도 신경써야 합니다. 글자를 읽는데 방해되지 않는 사진을 고르거나 사진 위에 반투명한 색깔을 더해서 글자가 잘 읽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진은 대체로 회색이며 명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글자의 명도 역시 낮아 대비가 적어 글자가 잘 읽히지 않습니다.



이때 글자의 색을 흰색으로 바꾸면 명도대비가 커져서 더 잘 보입니다.



사진 위에 반투명한 하늘색을 올려주어도, 색상 대비와 명도 대비가 더 커져서 더 잘 보입니다.

실수2. 크기 대비나 굵기 대비가 어색하다.

텍스트의 위계를 나누는 가장 큰 요소는 크기와 굵기입니다. 크기나 굵기의 대비를 잘못 주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정보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으며, 보기에 더 어색합니다. 더 중요한 정보일수록 크고 굵어야 하며 덜 중요한 정보일수록 작고 가늘어야 합니다. 또한 애매한 대비는 어색해 보입니다. 정보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대비를 주어야 합니다. 아래의 두 그림은 제목과 본문 간에 크기 및 굵기 대비를 준 사례입니다.

공군 핵심가치란?

공군의 핵심가치는 변화와 혼동의 시대에 공군인의 정신적 지주로서, 공군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윤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군이 추구하는 핵심목표에 대한 공군인의 의식을 고취하고, 일과 의사결정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변화와 혁신의 근본적인 원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군 핵심가치란?

공군의 핵심가치는 변화와 혼동의 시대에 공군인의 정신적 지주로서, 공군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윤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군이 추구하는 핵심목표에 대한 공군인의 의식을 고취하고, 일과 의사결정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변화와 혁신의 근본적인 원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군 핵심가치란?

공군의 핵심가치는 변화와 혼동의 시대에 공군인의 정신적 지주로서, 공군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윤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군이 추구하는 핵심목표에 대한 공군인의 의식을 고취하고, 일과 의사결정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변화와 혁신의 근본적인 원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그림은 제목에 해당하는 글자가 본문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굵기도 가늘서 혼동을 줍니다. 제목과 본문의 크기 대비도 어정쩡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위의 그림은 슬로건의 글자 크기와 명이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라는 슬로건이 먼저 읽히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공군'이라는 명이가 읽힙니다.

슬로건이 더 잘 보여야하기에 슬로건의 크기는 명이에 비해서 더 크게 하였고 호형적으로도 안정적인 여백과 크기 대비도 적절합니다. 한편 슬로건이 명이에 비해서 많이 크기에 슬로건의 두께는 명기보다 더 가늘게하여 강약조절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반면 그 아래의 그림은 그 위의 그림에 비해서 조화롭지 못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목이 본문보다 2배 크면 안정적입니다.

실수3. 디자인에 일관성이 없다.

디자인에 있어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정보 전달에 방해가 됩니다. 지난 화에서 색상과 명도의 조화를 이야기할 때 일관성을 강조한 것처럼 색상과 명도 그리고 디자인을 이루는 전체적인 것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가령 페이지마다 본문의 서체가 바뀐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디자인 패턴을 만들어서 일관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공군 핵심가치

공군 핵심가치란?

공군인으로서 최선이라 생각하는 윤리적 원칙이자 공통가치(Shared Value)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공군 핵심가치

핵심가치는 왜 선정했나요?

공군의 핵심가치는 변화와 혼동의 시대에 공군인의 정신적 지주로서, 공군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윤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02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은 어떤 발표 슬라이드의 1페이지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는 1페이지와 다른 서체와 정렬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디자인은 정보를 이해하는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합니다. 물론 페이지마다 다른 디자인을 사용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원칙과 패턴이 있다면 좋은 디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 타이포그래피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심호규 교수
(보라매리더십센터)



라는 뜻이다. 토마스 쿤(Thomas Kuhn 1922~1996)이 쓴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과학 활동에서 새로운 개념과 이론은 객관적 관찰을 통해서 형성되기보다 연구자 집단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이다.

과학의 역사는 진리의 축적에 따른 점진적 진보가 아니라, ‘혁명’, 즉 단절적 파열에 의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패러다임이란 과학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 가치, 기법 등의 총체로서 상대 주의적이다. 패러다임이 다르면 동일한 사실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뉴턴의 만유인력, 아이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등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기존의 학문의 틀에 갇혀 사고하고, 행동하였다면 과학의 발전은 더디었을 것이다. 새로운 생각을 발표하고 사회적으로 이해시킬 때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문화로 이어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어떠한가? 혹시 90년대의 지도를 갖고 현재의 서울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낡은 또는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란 고르디온이라는 프리지아 수도의 신전에 있는 이륜마차장식 매듭이었다. 이 매듭에는 예언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얻는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예언에 아시아를 정복하려고 많은 왕과 군주들이 도전했지만 결국 풀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원정을 가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지나가다 그 예언을 듣게 되었다. 매듭 앞에 한참을 서있던 그는 단번에 그 매듭을 풀었다. 어떻게 그는 이 매듭을 풀었을까?

저자는 물리학을 전공하다 심리치료를 전공해서인지 인문학에 과학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하는데 패러다임(paradigm)도 그런 단어이다. 패러다임(paradigm)은 ‘전환’이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정관념이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출발지에서 같은 목적지로 가더라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가는 길이 더 수월하고 빠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서 습관처럼 익히지면 그것은 자신만의 고정관념이 된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의 탈피를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남의 입장,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의도적인 변화 추구가 필요하다.

말, 동작, 장소, 순서, 도구 모든 걸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보다 보면, 고정관념이 깨질 것이다. 예를 들어 장소의 변화를 꾀한다면 생일날 마다 가는 식당이 있다면 그 식당을 바꿔보고, 앉는 자리, 순서도 바꿔보고, 색상, 물건의 위치 등을 바꾸고 변화시켜 보는 것이다.

자신의 방법과 타인의 방법을 비교해 보는 것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 올 수 있다. 새로운 것, 바꾸고 싶은 것을 처음부터 다시 도전하여 보는 것이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며 해결해 나갈 때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

고정관념은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면 고정관념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확신을 경계하고, 다르게 생각할 때, 그리고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볼 때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

역발상을 통하여 거꾸로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다. 쿠키 밥솔이 대표적인 예시다. 쿠키는 1998년 IMF로 모두 광고비를 줄이고 광고를 소극적으로 실시할 때 영업에 나선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안다고 하는 말에 힘을 얻어 20억 원이라는 광고비를 쏟아 부어 광고를 실시하였다. 모두 광고비를 줄일 때 바로 역발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광고비를 대거 투자하여 시장을 점령하게 된다. 생각하는 것은 쉬우나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역발상이다. 그러므로 작은 것의 실천부터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의 초점을 이동하여 보는 것도 좋다. 존재하지 않는 전제들을 스스로 설정했는지를 스스로 반문해보는 것이다. 문제에 맞추고 있는 초점을 다른 부분으로 옮겨보자. 규모가 크고 구조가 불명확한 경우는 문제를 분해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문제는 또 다른 소규모 문제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군복무를 단순히 시간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책을 100권 읽었다면 잡지부터 전문 서적까지 읽는 사람, 사회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며 나름의 방법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사람, 왕따였던 학창시절을 극복하겠다고 전우를 만드는 사람, 체력향상의 기회로 삼겠다는 사람, 자격증을 10개 이상을 따겠다고 공부하는 사람 등 의무복무를 어떻게 활용 할지는 문제의 초점을 설정하는 방법에 달렸다.

맨 처음 이야기의 답을 말해주겠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알렉산더의 방법은 단칼에 매듭을 둘로 잘라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를 정복한 제왕이 되었다. ^{AF}



인생 망했다고 생각될 때 ‘희망’ 찾는 법 『희망 버리기 기술』

첫 독자의
편집후기



『희망 버리기 기술』

마크 맨슨 지음 | 한재호 옮김
갤리온 펴냄 | 352쪽 | 16,000원

‘희망 버리기 기술’ 책 제목이 꽤나 자극적이다. 요즘 말로 하면 ‘어그로’(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가 잔뜩 들어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를 욕할 것은 없다. 미국에서 800만 부 이상 팔렸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 『신경 끄기의 기술』의 저자 마크 맨슨이 또 다시 베스트셀러 하나 만들어보려고 직접 붙인 제목은 아니다. 이 책의 원제는 ‘Everything is fucked : a book about hope’(모든 것이 망했다 : 희망에 대한 책)다. 책 역시 희망을 버리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망해버렸다고 생각되는 인생에서 희망을 찾는 법에 대해 설명한다.

책은 인간의 뇌를 ‘생각 뇌’와 ‘감정 뇌’로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프로이트의 ‘퍼스널리티’ 이론으로 설명하면 ‘생각 뇌’는 ‘에고’(ego), ‘감정 뇌’는 ‘이드’(id)와 비슷하다. ‘감정 뇌’는 말 그대로 감정을 주관하며 정서, 충동, 직관, 본능을 나타낸다. 반면, ‘생각 뇌’는 생각하는 뇌이며, 의식적인 사고, 계산 능력, 다양한 선택사항을 두고 추론하고 언어를 통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어렵다면, ‘생각 뇌’는 이성, 그리고 ‘감정 뇌’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저자가 이렇게 뇌를 두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생각 뇌’가 언제나 ‘감정 뇌’에 끌려다니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다. 이는 코끼리를 탄 기수가 코끼리를 특정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끌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코끼리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코끼리는 ‘감정 뇌’이며 기수는 ‘생각 뇌’에 해당한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몸과 머리를 움직여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언제나 이성이 아닌 감정 때문이다. ‘생각 뇌’는 ‘감정 뇌’가 어떤 충동적이거나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든 언제나 그것을 이뤄낼 방법을 찾을 뿐이다.

이렇게 딱딱한 내용을 먼저 설명한 이유는 ‘생각 뇌’와 ‘감정 뇌’라는 개념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희망을 찾는 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당신을 망친 것은 대출 이자처럼 쌓인 경험의 총합”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고집스럽고 까탈스러운 ‘감정 뇌’ 때문에 빚어지는 편향적인 가치관과, 이로 인해 잃어버린 희망에 대해 말한다. 예컨대, 연애 때 나쁜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여자의 ‘감정 뇌’는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첫째, 모든 남자는 개똥이다. 둘째, 그가 개똥이다. 안타깝게



도 남자들이 개똥이 아니며 자신이 모자란 것이란 선택은 여자의 ‘감정 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다. 따라서 여자는 모든 남자가 개똥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생각은 다음 연애 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여자의 ‘감정 뇌’는 다음 연애 상대 역시 개똥임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남자의 아주 작은 결점을 들춰내 트집을 잡기 시작한다. 잘못된 말, 부적절한 몸짓, 어색한 손길 하나하나에 고집스럽게 주목해 남자가 여자에게 학을 떼게 한다. 물론, 여기서 여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남자가 개똥이 아님을 인지하는 순간, ‘감정 뇌’가 자기 자신이 개똥이라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저 ‘Every man is fucked’, 자기는 남자복이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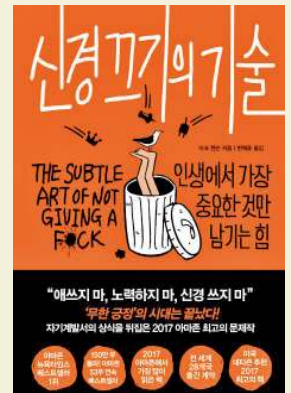
이렇게 ‘감정 뇌’로부터 빚어진 가치관 편향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가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앞서 설명한 예에서 여자가 계속해서 남자를 만나고 같은 방식으로 헤어지는 이상 자신이 남자복이 없다는 절망은 더욱 굳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자라는 성을 혐오하게 될지도 모른다. 비슷한 예로, 어린 시절 아빠에게 폭행당한 아이의 ‘감정 뇌’는 자신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고, 성인이 되면 그 가치관이 증폭될 것이다. 엄마가 새 남편을 만나 떠나버린 아이는 성인이 돼서는 더욱더 친밀함은 존재하지 않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편향된 가치관은 타인의 오해를 불러 타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는 끝없는 고통을 받는 뉘비우스의 띠가 반복된다. 결국 ‘감정 뇌’가 만든 편향적 가치관으로 인해 책의 원제처럼 ‘Everything is fucked’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행히 우리가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존재한다. ‘감정 뇌’가 굴리지 않아도 되는 눈덩이를 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재검토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예로 들은 여자는 자신이 왜 이렇게 남자복이 없는지를 과거의 연애사를 통해 되짚어보고, 사실은 자기가 복을 걸어차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여자에게 버림받은 남자는 자신이 버림받은 이유를 자신이나 여자가 개똥이어서가 아니라, 여자가 과거 어떤 나쁜 남자와 겪은 불행한 연애 때문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과거가 있다면, ‘잠깐, 그가 내게 주먹질을 한 건 내가 끔찍한 사람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끔찍한 사람이기 때문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감정 뇌’를 돌아보는 사고방식은 ‘난 그렇게 대단한 놈이 아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작가가 서문에서 말하듯, 세상은 갈수록 진보하고 풍요로워지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우울해져만 가고 자살률도 증가한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특히 ‘감정 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것이 망했다고 생각될 때,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감정 뇌’를 살펴보자. **AF**

01.



『신경 끄기의 기술』

마크 맨슨 지음 | 한재호 옮김 | 갈리온 퍼낸
236쪽 | 15,000원

02.



『시작의 기술』

개리 비숍 지음 | 이지연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 227쪽 | 16,000원

01. 미국에서 800만부가 팔린 마크 맨슨의 베스트셀러. 학창시절 마약 문제로 퇴학을 당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백수생활을 하던 저자가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전한다. 무조건 믿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특별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앞뒤 따지지 않는 긍정은 오히려 독이라는 것을 설득한다. 때론 내려놓고, 포기하고, 더 적게 신경 써야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02. 당신은 원하는 삶을 결코 살지 못할 거라는 체념이 문득문득 조우한다. 어쩌면 당신이 쫓는 그 행복, 갖고 싶은 몸무게, 선망하는 커리어, 갈망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 것이 될 수 없을지 모른다. 이 책은 자기 파멸적 독백을 경험해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다.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실천을 못 하는 사람, 실천하지 못한 일에 핑계만 대는 사람, 겨우 시작은 했지만 제대로 끝을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 과거의 찬란했던 시기만 되돌아보는 사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사람……。 하지만 이런 모든 후회를 뒤로하고 다시금 진정한 변화를 일구려는 사람들을 위한 시작의 기술이다.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에르빈 롬멜의 군인정신
- "군인은 현실주의자여야 한다."



글·사진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에르빈 롬멜의 군인정신 - “군인은 현실주의자여야 한다.”

“햇간에 불을 질러라.”

“높은 언덕에 집 한 채가 있다. 그 안에는 프랑스 군인들이
충을 겨누고 있다. 오늘 안에 이 집을 점령해야하지만, 정면
돌격을 할 경우 희생이 너무 크다. 귀관들이라면 어떻게 하겠
는가?”

1929년 무렵, 독일 드레스덴 보병 학교에서 교관이 던진 질문이
다. 이 물음에 생도들은 제각각 의견을 내놓았다. 대부분은
엄호 사격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관의 답변은 달
랐다. “나는 실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명탄을 갖고 올
라가 가까운 햇간에 쏘았다. 곧 불길이 치솟았고 상대편 병
사들은 불을 피해 도망쳤다. 우리는 유유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내놓은 교관

은 누구였을까? 제2차 세계대전 최고의
명장(名將)으로 꼽히는 에르빈 롬
멜(Erwin Rommel, 1891-
1944)이다. 롬멜의

수업은 언제나 ‘정식’과 거리가 멀었다. 지휘관으로서 롬멜
이 펼친 작전들도 다르지 않았다. 80대의 전차로 300대의 탱
크를 갖춘 영국군에 맞서야 했던 아프리카 전장(戰場), 그는
마분지를 차량 위에 덧대 ‘무늬만 전차’를 만들었다. 비행기
에 나뭇가지 덤불을 달아 사막의 흙바닥을 휘젓고 다니게도
했다. 엄청난 먼지바람을 보고 적들이 대규모 기갑사단이 있
으리라 지레 겁먹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아가, 경(輕)전차로 적
의 전차부대를 유인한 후 88밀리 대공포로 ‘탱크 사냥’을 벌
였다. 당시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공격이었다. 이쯤
되면 왜 롬멜에게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이해될
듯 싶다.

“나는 탁상 위의 전략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롬멜의 진정한 위대함은 남다른 용기에 있다. 1차 세계
대전 당시, 그는 최전방 지휘관으로 두 번이나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 결과 철십자 훈장을 받았고, 마침내는 프로이세 센
최고의 무공훈장인 ‘푸어 르 메리테(Pour le Merite)’을 목에
걸기까지 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롬멜 ‘장군’은 언제나 위험
한 최전선에 있었다. 그는 부하 장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곤 했
다. “오늘날 전차부대를 우리는 기병대처럼 지휘해야 한다. 기
병 부대장이 안장 위에서 명령을 내리듯, 전차 지휘관은 달리는
탱크 위에서 군대를 통솔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롬멜의 지휘 방식에 고개를 가웃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군단장이 초급 장교와 같을 수는 없는 법, 고급 장교라면
전체 판세를 읽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선과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편
이 낫다. 아울러, 지휘관이 전투 현장에 있어 접근하기 어렵다
면 부대 전체를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일리 있는 비판이지만, 롬멜이라면 이런 주장에 결연하게 반론
을 펼칠 듯 싶다. 롬멜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나는 탁상 위
의 전략을 믿지 않는다.” 그가 늘 강조했던 말이다. 그래서 그는
직접 정찰을 나가곤 했다. 정찰기를 타고 전선을 누비며 전투
상황을 직접 지켜보고 독려했으며, 지프차로 전방을 정찰하
다 영국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큰 부상을 입기까지 했다. 그는
현장에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믿었다.

◀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던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롬멜



아돌프 히틀러의 잘못된 환상은 권총 자살로 끝났다. ▶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바뀔 가능성이 없는 현실에서 해결책을 이끌어낼 용기가 없다. 아편에 취한 듯 전쟁놀음에 빠져 마봉책만 즐겨 쓰고, 실패하면 책임을 일선 장군들에게 뒤집어 씌운다. (중략) 아돌프 히틀러는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이성이 말해주는 것을 감정적으로 맞받는다.”

독일의 패전이 뚜렷해질 무렵 롬멜이 남긴 글의 일부다. 대공포로 적의 전차를 파괴한다는 그의 발상은 열악한 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다. 나이가 엄청난 열세에도 총통과 측근 장군들은 ‘절대 사수’를 외쳐댔지만, 롬멜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용기있게 주장했다. 그는 연합군의 무기와 병참의 뛰어남을 ‘체험’으로 알고 있었던 까닭이다.

“뭐라 규정짓기 어려운 카리스마”

롬멜은 냉정한 사람이었다. 보병학교 교관을 하던 시절, 그는 생도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말을 섞는다 해도 주제는 수학과 전술교리에서 그쳤다. 전쟁터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롬멜은 까칠한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뭐라 규정짓기 어려운 카리스마’가 있었다. 장병들은 롬멜에게 무한한 믿음을 보였다. 이 냉정한 장군의 지휘 아래 있으면 “누구도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롬멜은 뾰족까지 군인이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판단이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했다. 이 점에서 그는 적장(敵將)인 조지 패튼(George S. Patton, 1885-1945)과 비슷한 데가 있다. 패튼은 과묵한 성격이어서 자신의 부대 안에서도 그를 싫어하는 병사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장병들 모두는 승리하기(살아남기) 위해 패튼을 선택했다.”

롬멜도 비슷한 이유로 존경을 받았다. 그는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부하들과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유혹하지 않고 환상에 휘둘리지도 않으며,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채 승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 롬멜은 진정한 현실주의자였다.



“현실주의는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낳는다.”

롬멜은 엄연한 나치 독일의 장군이었다.

하지만 그를 전범(戰犯)으로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롬멜이 담당했던 아프리카 전선에서는 제네바 협정에서 벗어난 잔혹행위가 벌어지지 않았다. 또한 롬멜은 히틀러가 학살 명령을 무시해버리곤 했다. 그는 기사도 정신이 살아있는 충실한 군인이었을 뿐이다.

현실주의자답게 롬멜은 나중에 히틀러가 벌인 전쟁이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것, 나이가 총통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군인이었다. 전쟁 막바지, 일부 장교들은 그에게 히틀러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래도 롬멜은 상관을 죽인다는 결심을 차마 하지 못했다. “히틀러는 굉장한 사람이고, 정치적인 감각도 있으니 스스로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그는 마지막까지 히틀러를 설득해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반란은 실패했고, 롬멜도 총통의 눈 밖에 나 자살을 강요받고 만다.

환상은 가혹한 현실을 이겨낼 힘을 주곤 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환상은 결국 파멸을 낳을 뿐이다. 히틀러와 나치 집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 속에 머물렀다. 만약 나치 독일 군대에 롬멜같은 현실주의자가 더 많았다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현실주의는 진정한 승리뿐 아니라 평화도 가져온다. 패장(敗將)인 롬멜이 왜 지금도 전쟁영웅으로 존경받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AF

생각하는 그림 ●●●●●●●●●●

인생은 73세부터

“집안의 막내딸이라서 ‘막례’라는 이름을 받았다. 동네에서는 그래도 있는 집 자식이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할 기회도 없이 집안일만 했다. 그러다 남자 잘못 만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50년을 더 죽어라 일만 했다.” 바로 구독자 백만을 기록한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막례 할머니는 리어카 과일 장사, 꽃 장사, 엮 장사, 식당 일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웃과 친척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일하며 힘들게 버텼은 70년, 그러나 박막례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매 위험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냥 관 뚜껑 덮을 때까지 일하다 갈 팔자려니.”라고 생각하며 70세가 되던 해 모든 것을 포기할까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인생은 한 제안을 계기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손녀가 할머니의 치매 예방을 위해 유튜브 영상을 찍자고 권한 것입니다. 손녀와 여행가서 찍었던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었고 할머니의 일상적인 모습과 솔직하고 호탕한 매력에 팬들이 늘어나기 시작해 18명이었던 구독자는 어느덧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73세 박막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막례 할머니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보며 “진짜 빈대떡이 뒤집어지듯 인생이 확 뒤집어져 버렸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새 인생을 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2막을 찾아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노년층, 일명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자녀의 소득에 기대 수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실버 세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체적으로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흐름 속 패션업계에서도 시니어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가 모델의 적령기로 여겨졌고 나이가 든 모델들은 은퇴를 고려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60대 이상의 시니어 모델들이 활동하며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60대가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보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주변 상황, 선천적인 조건을 탓하고 ‘너무 늦었다며’ 시작도 해보기 전에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꿈과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액티브 시니어, 그들이 포기해 익숙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의 ‘나’보다 젊다. 젊은 당신, 도전하라.”** AF



● 기준의 기준 군대식

학창시절, 재밌게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재미없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있었다. 재밌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목소리, 억양, 제스처부터 남달랐다. 특히 특유의 사투리로 목소리만 들어도 몰입되는 선생님, 특이한 제스처로 학생들을 휘어잡는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았다.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으로서,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교육 효과와 학생들의 집중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바로 방식의 힘이다.

선생님마다 교수법이 달랐듯이, 과거의 지식과 지금의 지식은 전달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과거 정보는 주로 글로 전달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 정보 전달의 주요 매체는 영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새로 구매할 때, 블로그나 카페보다는 유튜브에 검색해본다.

지식 전달의 형식이 달라지자, 지식은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닌 놀이가 되었다. 마치 영화관에서 킬링타임 영화를 보듯이 정보를 '관람'하는 시대가 왔다. 형식이 바뀌자 지식이 가지는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TV의 예능 <알아두면 쓸 데 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하 알쓸신잡)이 대표적인 예다. <알쓸신잡>은 흔히 말하는 대학 교수, 작가 등이 나와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프로다. 하지만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지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 지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선생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착하는 학생이 아닌,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신 옛날 얘기에 스르르 잠들어버리는 어린이처럼 말이다.

최근 유튜브를 보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던 지식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 1년 전 유튜브 채널 '나는 갑수다'에는 방어 회 뜨는 법을 가르쳐주는 영상이 업로드 됐는데, 이 영상은 조회수 약 1,062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으로 전해지는 방어의 생명력, 회를 뜨는 사람의 날렵한 손 등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상당히 역동적이다. 만약 방어 회 뜨는 방법이 책으로 쓰여 도서관에 꽂혀있었다면 그 책을 펼쳐볼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전달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회 뜨는 법이 흥미로운 지식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앞으로 교과서와 칠판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은 '지루한 선생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시대에 태어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수업 중간중간 영상자료를 사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시키는 선생님이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 인정받을 것이다. 시대가 바뀔에 따라 선생님은 자신의 강의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군대식'이라는 말이 있다. 풀어서 표현하면 군대 같은 방식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군대식'이라는 표현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특히 억압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용인하지 않는 조직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는 한다. 군대의 방식이 강압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서, 자연스럽게 군대는 '가기 싫은 곳' 또는 '답답한 곳'이 되어버렸다.

군대의 방식이 달라져야 할 때다. 방식이 달라지면 군생활의 의미도 달라질 거라 믿는다. 선생님이 재미없게 가르치면 수업 시간이 즐거울 리가 없다. 수업 시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국 학생들은 학교에 갇혀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군대가 '갇혀 있는 곳'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복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고 행복한 군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방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좋은 선생님은 교육 효과가 낮을 때 학생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강의 방식을 되돌아볼 줄 아는 선생님이다. 지금까지의 군대는 수업을 지루하게 하는 선생님과도 같았다. 태도가 안 좋은 장병만을 탓해왔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장병 관리방식과 병영 문화를 되돌아보는 '좋은 군대'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9
12
4 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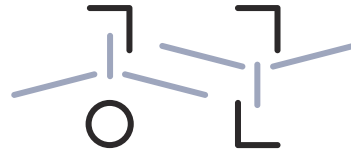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연락처 : _____

도로명 주소 : _____

□□□□□□



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5.12.1~2020.11.30
제501군사우체국
제32333-40027호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2 8 0 0



군사안보지원사령부
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

軍 간첩·테러범, 군사기밀 유출,
외국(軍)·방산 스파이, 보안사고(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337
언제 어디서나



신고유형

軍 간첩/테러범 · 보안사고(위반)
외국軍/방산 스파이 · 군사기밀유출



상금내역

간첩선 · 간첩 :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 최고 1억원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sc.mil.kr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편집실에 하고 싶은 말,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9
12
4 9 8

월간 「공군」은 인터넷으로 열람·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월간 「공군」 E-Book 자료관 : www.afzine.co.kr



마감일 : 12월 31일까지



월간 「공군」 편집실 연락처

인트라넷(E-mail) moa5819@af.mil

인터넷(E-mail) afzine@korea.kr

전화번호 042-552-6943

<엽서를 보내주세요!>

가장 좋았던 원고는? 더 알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에게, 전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제 월간 「공군」 엽서를 보내보세요.

위의 엽서에 쓰고, 자르고, 부치면 끝!

채택된 엽서는

오른쪽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며,

‘기념품’도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공군모집 카카오톡 채널 오픈

Ch

공군모집 일정과 소식이 궁금하다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공군모집 채널 추가!

서울, 수원, 원주, 대전·청주, 전주, 광주,
대구, 부산, 강릉, 진주 10개 채널 운영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1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검색 아이콘 터치

2

검색창에 공군모집을
검색하세요





「마음의 소리」



박성만 (서울시 구로구)

공군 창군의 주역인 최용덕이란 분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서월보와 중국 베이징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1924년 제2차 평조전쟁, 1926년 시안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중국 공군의 창설에도 기여한 분이 광복군 합류 후는 물론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공군창설에 반석을 세우셨다는 점이 우리나라 항공 역사에 일획을 그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잊어서는 안 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이자 공군의 산파인 최용덕이란 분이 많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편집실 최용덕 장군님의 업적이 널리 알려지게 저희도 기쁩니다. 한국방송(KBS)에서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이해 최용덕 장군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충천(冲天)> 또한 꼭 보셔서 더욱 최용덕 장군의 행적에 대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경기도 의정부시)

이번호 역시 한달 간 기다림을 보상이라도 받은 듯 모든 기사들이 한결같이 알차고 유익한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르포르타주>칼럼을 통해 공군 포병의 생생한 활약상을 잘 볼 수 있었으며, 비행기지 상공을 사수하는 공군 방공포병의 중요한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는 저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전투기뿐만 아니라 방공포병요원들의 빛나는 눈빛 또한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편집실 한 달 동안 기다린 독자님께 유익한 내용이 었다니 무척 뿌듯합니다. 우리 공군 방공포병대원들은 현재도 대한민국 영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잊지말아주세요. 더욱더 알찬 내용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월간『공군』을 관심을 갖고 재밌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백종명 (강원도 춘천시)

<그림으로 만나는 공군의 70년> 사보를 받아보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표지잖아요. 장엄하고 환상적인 이미지는 언제나처럼 멋지고 생동감이 넘치네요. 공군의 70년을 한 폭에 담은 김정기 작가의 라이브드로잉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 느껴졌습니다. 공군 창군 70주년을 축하합니다. 파이팅!

편집실 독자님, 김정기 작가의 드로잉은 이틀에 걸쳐 하얀 도화지 위에 오로지 붓펜으로만 그린 것입니다. 우리 공군의 역사 또한 무에서 유를 일궈낸 '기적'이었죠. 작품 안에서 공군의 다양한 모습 7가지를 찾아보며 공군의 70년의 역사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민 (대구광역시 동구)

공군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공군의 역사 찾기' 프로젝트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창군 7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한 해를 보낸 공군이 지금까지의 걸은 길을 다시 되돌아 봄과 동시에,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희망찬 미래구상 또한 동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많은 독자들에게 열심히 전달하는 월간『공군』에 마음을 담아 응원을 보냅니다.

편집실 올해 우리 공군이 창군 70주년을 기념하여 뜻깊은 한 해를 보낸 것을 알려주셔서 무척 기쁩니다. 편집실은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과거와 미래의 공군소식을 모아 모아 유익한 내용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월간『공군』을 구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 9 8